

이동화씨의 이라크 활동 보고서. 2004년. 출처 평화바다

[보고서]

전쟁 · 비극 · 이라크

작성일시 : 2004년 10월 16일

작성자 : 평화바다 활동가 셀럽

목차

1. 활동경과
2. 활동내용
3. 활동정리 및 평가
4. 향후계획
5. 정리하며

첨부 목록

1. 이라크 현지 1차 보고서
2. 이라크 현지 2차 보고서
3. 이라크 주권이양에 따른 이라크인들의 이야기
4. CWB 활동보고서(2004년 6월 이전까지)와 CWB 정관
5. 평화배움터 제안서
6. 현지활동비 결산 내역

1. 활동 경과

2004년 6월 5일 - 한국 시간 오후 5시 30분 인천공항 출국

6월 6일 - 방콕, 암만을 거쳐 현지시간 오전 12시 바그다드 도착(항공편 이용), 거주지 바그다드 내 동쪽 주택가 하이 알 자미에 지역에서 생활시작, 이라크 평화네트워크 활동가 윤정은씨와 함께 생활함.

6월 9일 - 작년 활동지역이었던 알 마시텔 지역 방문, 올해 2월까지 문을 열었던 놀이방과 공부방 지역을 둘러봄. 놀이방 집기 확인

6월 11일 - 이라크 현지 ngo인 CWB(Children Without Border, 국경 없는 어린이, 이하 CWB로 표기) 활동 사항 공유 시작. CWB의 주요사업인 바그다드 학교전담 안전을 살람과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무기한 연기 하도록 결정함

6월 13일 - CWB 주간회의에 처음 참석, 사무실 위치 타히르 광장근처의 엔지오 종합 건물, CWB 활동가인 살람, 리야드, 자원봉사자 순드스양을 비롯 2명과 조우(遭遇)함. 의견 공유.

6월 15일 - CWB 전체회의에 참석, 활동가, 자원봉사자들 총 8명이 회의 참석, 회의 도중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 출감하여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 있는 전직 기자를 만남.

6월 16일 - 1차 이라크 현지 보고서, CWB 단체 현황보고서 작성, 한국 평화바다 팀에게 보냄

6월 18일 - 바그다드 내 최대 빈민가인 알 사드르 지역에 방문하여 금요 예배 참석, 당시에 도 알 사드르 시내의 주민들과 미군과의 간헐적인 교전이 지속되고 있었음.

6월 19일 - 악화된 바그다드 내 치안 상황으로 인하여 CWB 바그다드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문을 닫고 외곽지역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는 의견이 나옴. 이에 타흐르 광장 근처에 있는 사무실은 문을 닫고 알 만수르 외곽지역에 있는 공간을 사무실용으로 찾아다녔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서 이사를 당분간 미루기로 함.

6월 21일 - 새벽 3시 고(故) 김선일씨 납치 사건을 접함. 아침 6시 살람과 함께 김선일씨 석방을 위해서 현지 이라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논의를 함. 한국 팀과의 의견 불일치와 현지 상황 판단 부족으로 계획했던 이라크 내 아랍방송과의 인터뷰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살람과 살람 친구(팔루자 출신의 종교 지도자)가 팔루자에 들어갔다가 단체 세력들과 만남을 가지고 바그다드로 돌아옴. 더 이상의 일은 진행시키지 않고 그의 석방소식을 기다림.

6월 22일 - 김선일씨 사망

6월 24일 - 바그다드에서 암만으로 이동(육로 이용), 살람 동행, 요르단 대학 앞 알 아메라 호텔 거주

6월 28일 - 미군정에 의해 예정보다 이틀 일찍 이라크 주권이양.

7월 5일 - 살람 이라크로 들어감. 계속 이라크 현지에 있는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재입국 시기를 조율함.

7월 16일 - 살람 다시 요르단으로 나옴

7월 18일 - 바그다드로 재입국(살람 동행, 육로 이동), 바그다드내 알 돌레이미 호텔 거주. 당일 한국인 기자 강은지씨 호텔에서 만남. 강은지씨를 통해서 한국 대사관과 연락이 닿음.

7월 20일 - 작년에 관계를 맺었던 변호사 출신의 하이달이 방문함. 그에게 새로운 거처를 부탁함.

7월 22일 - 알 돌레이미 호텔의 비용이 너무 비싸서 거처를 임시로 바그다드 내 가라데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상진씨의 사무실 겸 숙소로 옮김.

7월 25일 - 바그다드 내 안전한 곳으로 알려진 알 자밀레 주택 지역으로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움직임.

7월 26일 - 전직 이라크 원자력 연구소 직원이었던 아부 누리와 CWB 자원봉사자인 라켓이 이라크 지역의 방사능 누출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찾아옴. 이에 문제를 공유하고 어떻게 이라크 지역의 방사능 누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지를 논의함.

8월 1 ~ 8일 - 정권이양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함.

8월 초 ~ 미군과 쉬아파 저항세력의 교전 악화. 미군 나자프와 알 사드르 시, 중남부 도시를 포위하면서 학살 실행.

8월 13일 - 바그다드, 모술, 나스리야, 팔루자, 나자프, 카르벨라, 바스라 등 이라크 전 지역에서 미군에 의한 쉬아파 학살에 반대하는 시위 발생,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쉬아파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자프로 이동해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봄.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거절함.

8월 15~ 18일 - 내년 1월에 예정된 이라크 의회구성을 위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사전 준비모임격인 이라크 국민회의 개최됨, 나자프에 협상단 파견하였으나 협상실패. 나자프와 쉬아파 집단 거주 도시 내에서 계속 미군의 학살이 진행됨.

8월 20일 - 평화배움터에 대한 큰 골격을 살람과 함께 만들어냄. 알 사드르 지역 사람들과 접촉을 시작함.

8월 25일 - 이라크 방사능 누출 피해 조사를 위한 회의를 가짐. 역량이 미치지 않음을 인식하고 다른 큰 단체로 넘기거나 이라크 내 ngo를 결성해서 전담키로 함.

8월 27일 - 알 시스타니의 중재로 인하여 나자프에서 저항세력과 미군과의 평화안 체결,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계속 미군의 학살진행. 알 사드르 지역 출신 사람들과 만남을 가짐.

9월 3일 - 거처를 같은 호텔 3층으로 옮김. 알 사드르 지역 출신 사람들과 접촉을 함. 미군 나자프와 알 사드르에서 철군, 그 와중에 팔루자, 라마디 지역을 공습(空襲)함, 집 근처에서 두건의 폭탄 사고 발생.

9월 5일 - 알 사드르에 거주하고 있는 저항세력들과 만남을 가짐.

9월 6일 - 미군 다시 알 사드르 시내로 진격하여 치열한 교전 발생. 알 사드르 지역 사람들과 만남이 중단됨.

9월 7일 - 집 근처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이탈리아 반전 구호단체 bridge to baghdad 여성 활동가 두 명과 그들과 함께 활동하는 이라크인 두 명이 집 안에서 무장괴한 20여명에게 납치당함. 당일 밤 대사관에서 긴급 대피 요청을 함. 사태파악을 위해 거절함. 한상진씨는 대사관으로 대피.

9월 8일 - 살람과 하이달을 교대로 만나면서 대책을 논의함. 한시적으로 바그다드에서 활동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이라크 북부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으로 결정함. 또 다시 대사관에서 대피요청이 있었으나 거절.

9월 9일 - 대사관으로부터 주간(晝間)동안 활동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거처를 대사관으로 옮김.

9월 11일 - 이라크 한국대사의 명으로 주, 야간 출입통제 조치를 통보받음. 이에 거처를 안전한 곳(그린존)으로 옮기겠다고 항의했으나 묵살 당하였고 나가려면 국적을 포기하라고 종용받음.

9월 12일 - 대사면담, 최대한 활동을 자제하고 필요시 경호원을 대동하면서 움직일 테니 대사관 출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거부하기 시작함.

9월 14일 - 대사관 문서기관, 이서기관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이라크를 나가지 않을시 이라크 이민국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해서 강제추방을 시키겠다고 통보받음. 한국 평화바닥 팀원들과 긴급회의를 가짐. 강제추방시 향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암만으로 대피하기로 결정.

9월 16일 - 한상진씨 레바논으로 출국, 활동정리를 위해서 약속받았던 바깥출입 거부당함. 실질적으로 이라크에서 지속했던 활동들을 원만히 정리하지 못함.

9월 18일 - 바그다드에서 암만으로 이동(항공편), 살람도 암만으로 이동함(육로)

9월 21일 - 「평화배움터 - 전쟁지역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초안 작성

9월 22일 - 2차 이라크 현지보고서 작성

9월 23일 - 평화바닥 팀과 인터넷 회의, 한국으로 한시적 복귀 결정.

9월 25일 - 암만 출발

9월 27일 - 한국도착

2. 활동 내용

1) 현지 단체 CWB와 연대활동

이라크 현지인이 만들어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CWB는 그 중심에 살람 가드반이 있었다. 그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 NGO, 활동가들과 관계를 맺었고 전쟁이 끝나고서도 계속 한국 NGO와 인연을 맺어갔었다. 그러던 중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천주교평화연대 주선으로 2003년 8월, 한 달 간 한국을 방문해서 이라크의 상황을 한국에 전달하였고,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의 시민사회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이라크로 돌아간 후에 전쟁으로 망가진 이라크 사회를 자신들의 힘으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2004년 3월 주위에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라크 어린이들을 위한 NGO를 결성하였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나갔다.(첨부분서 참조) 하지만 NGO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라크에서 활동을 지속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까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현(現)평화마당(예전의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평화마당 활동가인 이동화(필자)가 이라크로 가서 연대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CWB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예상했던 바대로 CWB는 눈에 보이는 이라크의 수없이 많은 비극에 반응하고 있었다. 또한 단체의 사업들이 대부분 일회성 활동으로 그치고 계속 사업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위에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무언가를 하려 했지만 단체 내에 뚜렷한 목적과 단체 구성원들 간의 공유되는 바가 적어서 주위의 자원들(뜻을 지닌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한 이 후에 가장 먼저 활동했던 것은 단체 성원들 간의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목적을 확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CWB가 왜 결성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결정해서 일단 내부에서부터 동의를 얻고 나아가서 주위에 알리는 작업을 해야 했다. 그리고 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초(단체의 목적, 가치, 원칙 확립, 정관 재구성)부분에 관한 문서화 작업을 동시에 실행했다.

당시 CWB는 이라크 내무부(the ministry of interior) 등록된 상태였고 내무부 산하 기관인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에 정식으로 정기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매주 1회 자체 회의를 가지면서 활동들을 점검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6월부터 그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CWB팀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6월 중순, CWB 사무실 인근에서 발생한 폭탄공격으로 인하여 같은 빌딩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NGO들이 한시적으로 활동을 접고 사무실을 폐쇄하기 시작하였고 CWB내에서도 사무실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유는 그 빌딩자체가 정부산하 건물이었고 저항세력의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히나 외국인인 내가 자주 출입을 했기 때문에 이라크 사회 내에서 높아져 가고 있는 반 외국인 감정으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빌딩자체가 공격받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상시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리야드를 철수시키고 좀더 안전한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려고 했고 알 만수르 지역과 알 후리야 지역에 있는 장소를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하여 접촉을 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6월 21일 김선일씨 사태가 발생했고 살람과 나는 요르단으로 긴급대피를 했다.

7월 중순, 다시 바그다드로 돌아오고 나서는 개인 신변위협 때문에 바깥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문서화작업에 치중하였다. 그동안 진행했었던 사업들은 대부분 유보를 시키거나 취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 초 바그다드 내 알 투와이사 지역 학교 지원을 하면서 발견된 알 투와이사 지역 방사능피해에 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부 누리라는 사람이 CWB 자원 활동가였던 라켓을 통하여 접근을 해 왔고 살람과 나는 이를 어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그 분이 가지고 온 정보는 걸프전과 걸프전 이 후 미군의 공습으로 인하여 폭파된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까지 가동하고 있고 이는 사담 후세인 때에도 심각한 방사능 오염피해가 발생했으며 지금도 그 계속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어서 지역 사람들에게 직접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토양과 인근 강인 유프라테스 강을 경유하여 이라크 지역 사람들에게 심각한 방사능 2차 오염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세 번을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만나서 그의 설명을 들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피해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방사능 피해 조사와 같은 작업은 CWB의 영역이 아님을 인식하였고 이 사안을 다른 큰 단체에 넘겨서 좀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했기에 그 분에게 다른 외국인 단체를 소개 시켜주었고 더불어 자체 조직을 꾸려서 조사할 수 있게 NGO를 만들게 도움을 주었다.

8월, 나자프와 알 사드르 지역에서 미군에 의한 학살이 진행이 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접촉하였다. 그 지역의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고 미군의 공습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라크의 어린 아이들도 총을 들기 시작했고, 높은 실업율로 인하여 아이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거리로 구걸하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극히 좋지 않은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면서 평화배움터에 관한 생각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고 이를 살람에게 타진을 하고 주위 이라키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9월 초에 대략적인 평화배움터 초안을 만들 수 있었고 이를 살람과 함께 합의해 냈다. 그리고 암만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보낼 초안을 완성하고 한국으로 전송했다.

2) 현지 상황 한국에 알리기

현지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일지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에 보냈다. 일지는 총 30여 회, 보고서는 1, 2차 현지 상황 보고서와 CWB 단체 현황보고서와 2편의 기고용 글을 작성하였다.

3) 한국, 이라크 아이들 서신 교류

이라크 아이들과 한국아이들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게 서로 간에 서신을 교류하는 제안을 바끼통에 했으며 바끼통으로부터 때 마침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통 받았다. 이를 영어로 번역하였고 이를 다시 살람이 아랍어로 번역하여 살람의 첫째 딸(도하)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도하에게 답장을 받으려 했지만 그 때에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 몸이 억류되어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했다.

3. 활동 정리 및 평가

1) 이라크 상황 정리 및 분석

6개월 만에 다시 돌아간 이라크는 너무도 많이 변해있었고 불행하게도 악화되었다. (첨부 1 참조) 전쟁이 끝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오히려 1년 전보다 더 악화된 전기사정, 높은 실업률, 치안의 부재 등은 이라크인들의 삶을 고통과 전쟁 속으로 몰아넣었다. 또한 올해 2월과 4월에 있었던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사건과 팔루자 학살은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았다. 그동안의 산발적으로 저항했던 저항세력들이 그 사건 이후 점차 조직화되기 시작했고 미군의 분노로 가득 찬 이라크인들이 이에 적극 합류하면서 그 세력은 늘어가고 튼튼해 졌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작년까지 그 세력이 미비했던 쉬아파 무장 세력인 몰타다 알 사드르족의 세력 강화였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가 미국 점령시작부터 계속 반미 무장투쟁을 외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그의 무장 강경 투쟁노선에 동조하지 않았던 다수의 쉬아파와 일부 수니파들도 그 민병대에 가담하기 시작했고 직 간접적으로 호응하였다. 또한 이라크 인근 국가 출신의 이슬람전사들의 잇따른 외국인 납치와 참수 등은 이라크 내 사회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또한 이러한 납치와 참수, 외국인 정부와 기업,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전략 일부 국가와 기업들에게 성공을 거두자 이라크 내 반발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지고 치밀해졌다.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납치는 초기에는 주로 일부 위험지역과 도로상에서 발생하였고 실제로 납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미군과 점령당국에 관련이 없으면 풀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한 형태는 바뀌었다. 지금까지(2004년 9월) 약 110여명이 납치되었고 그중 40여명이 죽음을 당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납치와 참수 전략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라크 내부의 혼란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의 상황은 이라크인들로 하여금 사소한 문제도 극단적 방식으로 해결하게끔 하였고 실제로 내부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과 군인은 자신들 안전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실정이 되었다. 이러한 이라크의 사회가 끝이 안 보이는 혼란의 상황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점령당국의 잘못된 통치에 있고 미군의 학살에서 연유하고 있다. (첨부 2 참조)

현재의 이라크 상황을 풀기 위한 가장 첫 단추는 점령군의 철수이다. 이 단추가 끼워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라크 평화라는 다음단계로 갈 수가 없다. 미군은 공개적으로 내년 이라크 총선 전까지 저항세력들을 소탕, 섬멸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실제 10월이 시작되면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학살은 비밀에 붙이고 저항세력들의 일부 극단적 행위(외국인 납치, 참수)를 언론에 보도 하면서 자신들의 학살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현재의 전쟁상황을 고착시키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라크 내부에서 제대로 된 언론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라크 한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여도 일부 아랍계 언론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기자들이 접근할 수 없고 최근에는 사건을 취재하고 있던 아랍계 기자들마저도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이라크에 거주하는 기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 하게 되고 실제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이라크 임시정부에 발표하는 자료들과 미군이 발표하는 자료들을 받아서 그대로 본국에 전송하는 것이 이라크 뉴스의 대부분이다. 또한 이라크 현지의 3개의 방송사와 각 지역별로 종파별로 정당별로 발행하는 신문들이 있기는 하지만 방송사는 철저히 친미적이고 친 정부 쪽이고 신문들은 이라크 사회 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이라크는 철저히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져 전달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1월 총선의 실행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충분히 근거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정치과정속에 이라크를 끼워 맞출 것이고 현재의 군사작전도 총선 즈음해서 정치적 타협의 방식으로 변화시켜서라도 총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계획된 총선을 연기했을 때에는 그나마 미국과 이라크 임시정부와 한발 걸쳐 있는 온건 쉬아파 이야틀라 알 시스타니족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에 미국과 임시정부는 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 때까지 미군과 점령군은 수니지역과 강경쉬아파 그룹의 소탕을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것이다. 이미 미군과 점령군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최후를 향해서 차단고 있는 중이다.

2) 활동 정리 및 평가

① 변화된 환경, 불안한 치안 상황

2004년 2년을 계획하고 이라크에 재입국을 하면서 세웠던 활동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 가지는 CWB와의 연대활동이었고 나머지는 전쟁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구술사 작업이었다. 결론적으로 계획했던 활동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변화된 이라크의 상황이었다.

6월 초에 도착한 바그다드는 작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절반은 같았고 절반은 달랐다. 같은 절반은 여전히 이라크 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간접 시설은 복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이라크 인들이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절반은 이라크 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분노가 한층 깊어졌다는 것이었다. 치유되지 않은 채 1년 이상 깊어지는 절망과 분노는 타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납치로 이어졌다.

초기에는 이러한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계획했던 활동들을 수정해 가는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주위 친구들을 위해서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내가 알고 있던 그들은 여전히 친절했고 손님들에게 환대 했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 숨겨진 그들의 두려움을 눈치 챘을 때 더 이상 그들을 작년처럼 편하게만 대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와중에 김선일씨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선일씨 사건은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개인적으로는 납치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고 주변의 이라크 인들에게는 한국인과 같이 일을 했을 때 실재하는 위협을 인식시켰다.

암만으로 대피하였을 때 살림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활동을 많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김선일씨 사건이 났을 때의 한국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또 한번 김선일씨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한국사회에 불어 닥칠 반 이라크 정서와 그에 따른 역풍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활동위주에서 신변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 활동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천천히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7월 중순에 다시 바그다드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부딪친 문제는 거처의 문제였다. 김선일씨 사건이전까지는 바그다드 내 하이 알 자미에 지역의 살림의 친척집이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더 이상 그 곳에서 지낼 수가 없었고 안전이 보장되는 호텔에서 거주를 시작하였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오랫동안 지낼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찾아낸 교육지킴이 바그다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진씨 거처로 잠시 머무르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계속 거주할 방을 찾아다녔지만 가격과 안전의 이유로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좀 더 문제가 되었던 점은 가격보다는 안전의 부분이었다. 친구 하이달의 도움으로 수차례 새로운 집을 다녔지만 나와 하이달이 만족할 만한 집이라 하더라도 주위의 다른 이라크 친구들을 다 만족시키진 못했다. 그 때도 우선 고려했던 것은 안전의 문제였다. 그러면서 8월을 보내고 9월이 시작되면서 한상진씨가 거처를 옮겨야 할 때 같은 건물 3층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그 곳은 새로운 집을 얻기 전이 임시거처로 여겼다. 그리고 9월 7일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탈리아 여성활동가 두 명이 집에서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를 당했을 때 안전한 곳을 찾아서 대사관으로 대피하게 되었다. 당시 거처했던 곳이 나와 주위의 이라크 인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안전한 곳이었다면 대사관으로 대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돌이켜 보았을 때 현지 활동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거처의 문제이다. 특히나 분쟁지역 이거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거처는 불가능하겠지만 활동가에게 심적 안정감을 주는 거처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문제이다.

② CWB 와의 연대활동

주요하게 계획했던 활동이었지만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다. 그만큼 기대가 컸기에 반성을 해야 부분도 많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부분도 전체의 이라크 상황에 연관되어서 영향을 받았지만 연대활동의 미진한 부분을 모두 이라크의 불안한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살람이나 CWB회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그렇다. 그들이 나에게 원했던 것은 돈이나 물질적 지원이 아니었다. 그들의 짧은 NGO 활동경험에서 기반 되는 불안감과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연대활동이었고 이를 외국 NGO 출신이 내가 채워주길 바랬다.

처음 CWB사람들을 접했을 때 이들은 이미 팔루자 의약품 지급이나, 알 투와이사 지역 알 파탈 스쿨 지원을 진행하고 있었고 바그다드 지역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부모, 선생님, 지역 교육담당자들이 함께하는 연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러한 아이디어 중에 무엇이 가능한지 타진하고 있었던 때였다. 하지만 당시 내가 했던 활동은 신중을 기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중단하고 유보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당시 생각은 그동안 이라크와 같은 지원당사국 NGO의 관행(외부 펀드를 지원받아서 일을 진행시키고 펀드 유입이 끝났을 때 활동을 중단하는)을 막고 내부 결실을 다지면서 천천히 그리고 오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살람 이외의 다른 CWB회원들에게는 방해자로서 인식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추진력을 끊어버리는 악역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6월 15일 경 CWB 사무실 인근에서 미군의 차량이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전소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라크 젊은이들이 몰려들어서 불에 타고 있는 미군 험비차량 근처에서 춤을 추면서 환호했었고 이를 취재하려던 외국인 기자들에게 달려들어 당장 이라크를 떠나지 않을 시에는 죽이겠다고 했다. 이를 지켜본 살람과 CWB회원들은 불안감을 직접적으로 느꼈고 이는 CWB 사무실을 옮기자는 제안으로 이어졌다. 그 이전부터 정부 관공서나 경찰서는 공격을 대상이 되었었다. CWB 사무실도 TAHRIR(해방) 광장에 있는 예전 정부 건물이었기에 폭탄공격의 대상이었다. 그러면서 다른 장소로 사무실을 옮기하고자 했지만 CWB 회원들 집이 다들 외곽이어서 쉽게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김선일씨 사건이 발생하였고 CWB의 핵심이었던 살람이 암만으로 나와 같이 대피를 하는 바람에 CWB와는 긴밀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 김선일씨 사건이전에 나왔던 신문발행, 연극 이라크 순회상연등과 같은 일들은 시기를 놓쳤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정기회의의 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평화배움터에 대한 의견이 나와 살람을 통해서 제기가 되면서 다시 조금씩 활기를 찾기 시작했지만 초기의 그 활발함과는 약간 달랐다.

현재의 이라크의 많은 NGO들은 이라크 임시정부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미군측이 주관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뛰어들고 있다. 더구나 이라크 NGO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은 이라크 사회내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일부 NGO에서는 돈을 받고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CWB는 등록은 되어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미군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들에는 관여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이라크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건강함을 지니고 있다. 특히나 팔루자 학살이 있을 때 학

살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의약품을 전달하고 식량을 전달하여서 팔루자 내에서도 신망을 얻고 있다.

CWB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아쉬운 점은 살람에게 대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살람이 흔들리거나 거취가 변하면 CWB 전체가 휘청거린다. 물론 리야드와 바심이라는 젊은 상근자 들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내부의 동력은 부족한 듯 하고 이는 살람도 자주 이야기 했다. 이에 꾸준히 지속할 수 있고 CWB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적합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내부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CWB에 필요한 것은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자꾸만 주위에서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대신 적(이들에게 적은 너무도 명확하다. 미국과 미군, 그리고 점령국과 점령군)들이 예전 친구들이 대신했던 일 속으로 들어와 대체하고 있다. 정치적 입장과 생각이 단체의 전부를 덮기는 않기 때문에 필요시 이라크 임시정부나 미군에서 나오는 편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CWB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이라크는 이라크인에 의해서 재건이 되어야 하고 그 명제는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이루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고 전쟁상태로 붕괴된 이라크 사회를 조금이라도 복구하기 위해서는 건강성을 지닌 단체와 연대를 해야 할 것이다.

③ 이라크 소식 알리기, 어린이 서신 교류

계속 악화되어가는 이라크의 사정과 한국에서 보도되는 선정적이고 점령국의 시각이 반영된 이라크 소식을 접하면서 현재 이라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특히나 8월부터 시작된 미군과 점령군의 저항세력 섬멸, 소탕 군사작전은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학살의 현상이 벌어지는 곳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었고 밖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소식을 기민하게 전달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소식을 알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기자의 정체성보다는 잘 알지도 못하는 활동가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자기 만족적 대답이 있어서 소식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계획했던 활동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의 이라크 소식은 온통 비틀어져 있다. 그 안에 일반 이라크 민중들이 생각과 목소리는 없다. 있다면 미군의 기자회견이나 이라크 임시정부의 발표뿐이다. 더군다나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도착한 후에는 한국의 예비학살자들에게 대한 동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라크 민중들이 약간의 편차는 존재할 지라도 한국의 군인들에 대해 전혀 동정을 하지 않고 그들의 주둔에 분노해 하고 증오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함에도 이는 소수의 의견이 된듯하다.

앞으로 살람을 통하여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이 주일에 한번 이라크의 소식을 받기로 했다. 물론 여러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살람의 생각과 시각이 많이 반영이 될 것이고 뉴스의 전달보다는 칼럼과 같은 소식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의견과 사고를 아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젊고 유능한 기자출신의 이라크인과 연결을 취해서 그(들)에게 소식을 받는 것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 어린이들과 한국 어린이들 간의 서신교류는 개인적으로 무척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했고 이라크에 들어오기 전부터 바끼통(<http://cafe.daum.net/gibumiraq>)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하면서 양국의 어린

이들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류를 했으면 했기에 한국 어린이들의 편지는 바끼통으로부터 받고 이것을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전달을 하려 했다. 7월에 다시 이라크에 들어가서 바끼통 운영자인 프랭스에게 제의 메일을 보냈고 그러면서 서신 교류는 시작되었다. 마침 한국의 익명의 어린이로부터 편지를 한통 받았고 이를 영어로 번역해서 살람에게 넘겨주었고 살람은 그걸 아랍어로 번역해서 자신의 첫째 딸인 도하에게 건넸고 도하로부터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과정이 거의 한달 정도 걸렸다. 작년 같은 경우라면 이라크 어린이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움직이는 것이 한정되다보니 이라크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쉽게 여기고 시작하다가 의외로 많은 시간이 투입된다는 것을 알았고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꼭 필요한 일이기에 계속 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4. 향후 계획

1) 평화배움터 사업

평화배움터의 시작은 김선일씨 사건 이후 암만에서 살람과 같이 지내면서부터였다. 암만에서 약 2주간 살람과 한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살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동안의 경험(알 마시텔 공부방, 그리고 살람이 했던던 다르 알 하난과 알 누리 장애인 시설의 지원)들로 인하여 쉽게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를 주저했을 때 그리고 한국과 이라크의 시민 단체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 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생겨났었다. 살람과 CWB 회원들 아 니 이라크 어린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지니고 있는 이라크인들은 대부분 전쟁 문화 속에서 자라날 이라크 어린이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이를 풀어낼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살람의 주장에 적극 공감을 하였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현실화시켜낼 것인지? 특히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 경험했던 알 마시텔의 기억들, 또 책임지지 못할 부분을 벌리고 이로 인하여 한국과 이라크 사람 두 쪽에 다 상처만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등등의 주저와 두려움은 떨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이 평화배움터가 이라크 평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과 연관이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도 내부에서 계속 있었다.

8월 나자프와 이라크 중부도시, 그리고 바그다드 내 최대 빈민가 알 사드르 지역에서 미군과 점령군에 의한 학살이 진행이 될 때 어떻게든 그 학살에 저항을 하고 싶었고 막고 싶었다. 온 몸으로라도 그 곳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라크의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았다. 갈수록 많은 아이들이 거리로 나와서 행상을 하거나 구걸을 했다. 알 사드르 지역의 아이들이나 미군의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팔루자나 라마디 지역의 아이들의 사정은 더욱 심했다. 학교는 폭격으로 파괴되고 놀이터는 커녕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면서 집 안에서 분노와 증오만을 키우고 있었다. 내가 이러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8월 하순부터 알 사드르 지역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그동안 알 사드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들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가슴이 많이 아프면서 화가 치밀었다. 귀로 듣고 있는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그들은 얼마나 분노를 할지 상상할 수 있었다. 이들은 당연히 총을 들고 길가에 나가서 싸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알 사드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질문들과 주저함은

해야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어떻게 현실화를 시킬 지로 주제는 넘어갔다. 살람과 작년에 관계를 맺었던 이라크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고 그들의 생각을 물었다. 그들은 모두 다 적극 찬성했고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했다. 작년에 이라크에 공부방을 열었다가 올해 운영상과 안전상의 이유로 문을 닫았던 경험이 있는지라 그러한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다.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투여했다. 그리고 다시 암만으로 나왔을 때 초안(첨부 5 참조)을 만들었다. 많이 허술하고 부족하다. 많은 고민을 했다하더라도 살람과 둘이서 만든 초안인지라 한계가 너무 많았다.

평화배움터가 현재의 이라크 전쟁 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마도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라크 평화활동보다는 이라크 재건 활동에 더 가깝다. 하지만 이는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그 씨앗이 자라서 커다란 평화의 나무가 될지, 피어나지도 못하고 땅속에 그냥 묻혀버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는 또한 씨앗을 준비하는 자들의 몫일 것이다.

평화배움터의 정체를 거칠게 정리하면 전쟁 진행지역에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또한 평화와 관련된 공부를 같이 하자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은 평화와 관련된 공부라고 생각한다. 평화는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상대적일 수 있다. 평화에 대한 답은 완성형이라기보다는 진행형일 것이다. 전쟁과 폭력, 죽음과 고통이 없는 상황을 바라는 이라크 사람들과 한국의 사람들이 같이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화두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실마리를 평화배움터가 마련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2) 준비해야 할 것들

초기의 적응기간, 김선일씨 사건, 암만 생활, 재입국, 나자프학살, 이라크 전 지역에서의 전쟁 심화, 한국군 파병, 이탈리아 활동가 납치, 대사관내 억류..... 이 속에서 나는 평화배움터에 대한 초안을 만들었고 그에 대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다시 이라크에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해 본다.

① 명확한 활동계획

현지의 사정은 항상 예측불허이다. 특히나 분쟁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건, 사고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활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 단기 계획을 구분해서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② 튼튼한 네트워크 구성

김선일씨 사건이 터졌을 때 현지와 한국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중간에 연락이 끊기기도 해서 양측에서 답답하고 불안해했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 활동이 아닌 팀활동의 일환으로 분쟁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지 활동가와 모국 팀간의 튼튼한 네트워크는 필수이다.

③ 활동 원칙 구성

분쟁지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해외의 큰 구호단체의

경우에는 돌발상황에 대해서 나름의 원칙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활동들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활동을 고수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활동을 접고 철수를 해야 하는 원칙들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해서 원칙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김선일씨 사건이나 대사관의 사건에서 미루어 볼 때 현지활동가와 팀간에서 우왕좌왕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현지 상황 변화에 따른 팀의 원칙이 꼭 있어야만 하고 이에 근거해서 활동을 해야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혼란을 막을 수 있다.

④ 지속적인 재정 확보

이번 이라크 활동은 이라크 현지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예상했던 재정보다 많은 재정이 필요로 했다. 최소한의 재정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활동가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앞에서 열거한 것은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려는 조직의 일반 원칙들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평화배움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먼저 평화배움터를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한 전쟁피해 복구 차원의 활동을 넘어서 분쟁지역에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을 원하는 개인과 조직들을 묶어내야 한다. 사실 한국군 파병이 끝난 이후 한국 사회 내에서 이라크에 대한 관심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전쟁반대와 점령반대, 파병반대를 외쳤던 조직들과 개인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 그룹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배움터는 한 단체나 특정 개인들로 구성이 되어서는 제대로 실행하기 힘들다. 재정도 문제이지만 배움터 안을 채울 평화 교육은 뚜렷한 중추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럿이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돌아와서 그룹이 구성되어지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시키고 각 개인이나 단체가 하고자 하는 다른 아이디어를 소통시켜 현실 가능한 사업들을 준비한다. 그리고 상황이 호전되고 여건이 나아지면 현지 활동을 시작하면서 평화배움터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이를 한국에 전달한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반전, 반 점령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5. 정리하며

올해 6월 다시 이라크로 돌아가려 할 때 주위에서 많은 우려를 하였고 반대도 많이 했다. 그 이유는 활동가들이 현지에 가면 일부 범죄집단에 의해 납치될 가능성이 너무 크고 만약 납치가 되었을 때에는 활동가의 안전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나 이라크인에게도 모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타당한 이유이다. 여전히 이와 같은 상황은 진행 중이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현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상황이 호전된 후에 현지로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 둘째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지로 들어가는 경우일 것이다. 둘 다 스스로에게 명확한 정당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지금의 심정이다. 계속 고민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현지에 있는 이라크 인들에게도 의견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미국 정부와 그의 동맹국 정부는 이라크 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고 이라크 인들은 그들을 상대로 저항하고 싸우고 있다. 또한 전쟁이 만들어 가고 있는 최악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삶을 지속하고 있다. 시기가 언제일지는 당장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쟁의 고리를 끊고 전쟁이 만들어내는 비극과 고통을 기억하고 알려야 한다. 왜 전쟁을 막아야 하고 종식시켜야

하는지를 점령, 가해 집단의 시각이 아닌 피해집단의 시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한국 민중과 이라크 민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활동을 조직해 내야하고 무엇보다 이라크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가져야 한다. 이러한이 그동안 이라크에서 보고 들었던 기억에 대한 대답이고, 계속 이라크 현지에서 활동을 하려는 내 내면의 소리이다.

첨부 1) 이라크 현지 1차보고서

◆1차 바그다드 현지 보고서◆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이라크, 바그다드의 모습

2003년 12월 12일 나는 바그다드에서 요르단 암만으로 향하는 국경택시에 몸을 싣고 6개월 동안 정들었던 이라크 바그다드를 떠나왔다. 당시 6개월간의 생활을 뒤돌아 볼 때에는 무어라 형용하기 힘든 느낌이었다. 아쉬움, 안타까움 등등.....

2003년 3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반하여 미국의 조지부시정권은 이라크전쟁을 일으켰고, 21세기 최초의 전쟁을 몸으로라도 막아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라크로 모인 수백 명의 인간방패(휴먼쉴즈)들은 자신들의 힘의 한계에 절망했고 전쟁은 예상보다 빠르게 종결이 되면서 전후 복구를 위해 전 세계의 많은 NGO단체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이라크에 모였다. 그 중에 한명이 나였고 전후(戰後) 이라크에서 이라크 민중에 의한 민중지원을 하기 위해 6개월의 시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보냈지만 정말 이들에 의한 민중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했을 때 그리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고 이는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서 와야 한다.□□라는 개인적인 숙제를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04년 6월 5일, 이라크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이러한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이라크의 어린이들을 위한 NGO설립과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라크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 다시 이라크행 비행기에 올랐다. 무엇보다 일회성 민중지원이 아닌 그들에 의한 NGO 건설에 같이 하기 위함이었다. 6월 6일 생각보다 빨리 바그다드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나를 맞이해 주는 것은 황량한 별판과 뜨겁게 불어오는 사막의 먼지바람, 내리쬐는 햇볕 등이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작년 12월까지 이라크로 들어오는 방법은 암만(요르단), 터키에서 국경을 넘는 택시를 타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 암만에서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비행기 편이 생겼다. 특히나 암만에서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외국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과 약탈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 안에 팔루자(최근까지 미군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었고, 저항세력들이 가장 치열하게 미군과 교전을 하였던 도시)가 위치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차량은 저항세력의 연성타겟(soft target)이 되곤 했다. 그래서 나는 암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그다드로 들어왔다.

바그다드에 도착한 후 나는 6월 25일까지 약 20일간 짧은 생활을 하고 요르단 암만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김선일씨 사건이후 외국인에 대한 공격(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파병당사자국)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6월 말일로 예정되었던 정권이양시기에 맞물려 저항세력들의 총공세가 예상되었기에 현지에서 ngo를 만들고 그들의 삶의 고통을 기록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같이 일하는 이라크인들이 한국인과 함께 일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저항세력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20일 동안 바그다드 내에서 지내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치안 상황

종전 선언이 있는 지 1년이 훨씬 넘은 지금 이라크의 치안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 점령당국과 이라크인들, 그리고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신기자들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치안의 악화를 직접적으로 느낀 것은 작년 12월까지 거주했었던 바그다드 외곽에 위치한 알 마시텔 지역의 변화된 분위기였다. 작년 후반까지도 이라크의 저항세력과 점령군과의 교전은 계속적으로 있었고 점차 증가하고 있었던 추세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마을 내에서 느끼지는 못했다. 외부적으로는 많은 자살폭탄 공격, 게릴라전, 공격과 반격이 있었지만 마을내의 분위기는 이와는 좀 다르게 나름대로 마을의 종교지도자가 실질적인 장악력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적어도 점령군과 점령군에 동조하지 않았을 시에는 안전했었다. 그러나 다시 찾은 알 마시텔의 지역의 상황은 달라져 있었다. 올해 초 저항세력들의 잇단 외국인 납치와 참수, 그리고 무차별적인 공격(점령군 캠프와 정부관공서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거리, 사원등에서의 폭탄공격)으로 인하여 친하게 지냈던 이라크 가정인 아부알리 집에서 내가 온 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내가 거주할 때에도 커튼을 쳐서 외부의 시각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적으로 큰 충격이었다.

이라크인들 조차 저항세력의 공격에 안전하지 않은 지금에 저항세력의 연성타겟(soft target)이 될 확률이 너무 높은 외국인인 내가 밖으로 돌아다녔을 경우 발생할 불상사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누구도 저항세력에 대해서 정확한 구성도를 그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저항세력들이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오랫동안 세이크(종교지도자)였던 아마르의 말에 따르면 □□저항세력은 크게 이라크인으로 구성된 저항세력과 외부 이슬람 전사로 나눌 수 있고, 이라크인에 의한 저항세력은 사담정권시절의 직할대, 페다인 사담, 잔존 군인들(이들은 대부분 수니파이기도 하다.) 쉬 아파내의 급진파이자 강경반미투쟁을 했던 몰타다 사드르의 민병대인 마흐디군¹⁾으로 구성되고 외부 이슬람 전사는 알 카에다 세력과 시리아와 터키 쪽에서 넘어온 무장세력들이다. 우리는 외부에서 넘어온 이슬람 전사들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라크인들의 생명도 개의치 않고 공격한다.□□라고 하였다.

점령군의 잘못된 점령통치가 계속되면서 이라크인들의 원성은 높아졌고 이라크인들의 눈에 비친 점령군의 모습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수감자학대, 팔루자지역의 민간인 학살, 수니삼각지대²⁾에 대한 잦은 진압작전,

1) 마흐디(MAHDI)란 원래 이슬람 종교에서 언급하는 □□올바로 인도된 존재□□라는 뜻으로 이슬람의 천년왕국을 선포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2) 수니삼각지대는 남쪽 바그다드와 북부 티크리트, 서쪽 라마디 도시를 연결할 때 이루어지는 지대로 친(親)사담 세력과 수니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쟁 이후 가장 활발하게 반미무장투쟁이 전개된 지역이고 역으로 점령군에 의한 진압작전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무슬림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벌어지는 민사작전으로 인하여 점령초기의 시각과는 완전히 달라진 최악의 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많은 이라크의 젊은이들은 몰타다 사드르의 반미무장투쟁에 호응하고 사드르의 마흐디군에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종전 이 후 몰타다 알 사드르의 세력은 미비하였다. 알 사드르의 개인적 역량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인 모함메트 바킬 알 사드르³⁾의 후광이 컸다. 2003년 10월, 몰타다 알 사드르는 쉬아 모스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민병대를 모집했고 이에 미군에 의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는 은신처를 옮기면서 지속적으로 대외적으로 반미무장투쟁을 선언했고 이에 미군의 점령통치에 분노한 다수의 이라크인들이 이에 호응하고 점차 몰타다 알 사드르의 세력은 커졌다. 그래서 종전 선언 이 후 세력이 미비했던 몰타다 알 사드르와 그 추종자의 세력은 이라크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부상하였다. 이는 그동안 미군과 점령군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쉬아파내에서 급진파 세력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의미 있는 현상이 된 것이다.

돌아와서 이라크 내의 치안의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는 종파간의 갈등과 종족간의 갈등이다. 이라크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쉬아파는 사담정권시절 억압을 받았었고, 많은 쉬아파 종교지도자들이 사담정권에 의해 죽거나 해외로 도피하여 반정부투쟁을 하였었다. 종전 선언 이 후 쉬아파의 정치적 역량과 발언권은 커졌고 미군정도 IGC(iraq governing council,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을 구성할 때 다수의 의석을 쉬아파에게 배분해주었다. 이에 이라크 권력내부의 투쟁이 발생했고 이는 쉬아파 종교지도자와 과도 통치위원회에 대한 암살과 자살폭탄공격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도 수차례 쉬아파와 수니파 모두가 종교의식이 있는 금요일 예배가 끝난 후에 대규모 폭탄공격이 있어서 수십, 수백의 이라크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사망했다. 이러한 내부권력투쟁이 외부저항세력에 의한 이라크 내부혼란조성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설도 있고 또한 미군정에 의해 조작된 사고라는 음모설도 있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라크 내부 종교지도자와 그 세력에 대한 공격은 이라크의 인들의 사고에 엄청난 혼란과 불안감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쿠르트 인과 쿠르트 정당에 대한 공격도 빈번히 있어왔다. 누구에 의한 공격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 역시 이라크 내부의 치안 불안감을 높인 하나의 요인일 것이다.

이렇듯 종전 선언이 있는 지 1년이 지난 지금, 점령군과 저항세력간의 계속되는 전투, 미군을 위시로 한 점령군의 계속적인 민사작전, 저항세력의 외국인들을 비롯한 이라크 민간인 공격, 종파간의 갈등, 종족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현재 이라크의 치안상황은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전기상황

이라크에 살면서 가장 피부로 불편을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전기상황일 것이다. 전쟁 직 후 이라크는 하루에 정전이 2시간 단위로 약 3~4번 정도 있었다. 그 빈도는 차츰 늘어나다가 이내 조금씩 나아졌다. 하루 24시간 중 전쟁 직 후에는 약 8시간 정도 정전이 되었다가 차츰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2003년 여름철(7~8월)에 약 10시간 정도 정전이 되었다. 여름철이 지나고서 라마단이 시작되는 2003년 10월말 즈음에는 하루에 절반인 12시간이 정전이었고 당시 2003년 11월 저항세력의 총공세가 있었던 시기에는 2~3일 동안 전기를 전혀 공급받지 못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CPA와 이라크 임시정부의 발표는 계속 전력시설을 복구해 나아가고 있고 연말에는 전력공급을 하루 1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TV를 통해서 확인했다.

3) 모함메트 바킬 알 사드르는 사담정권시절 쉬아파의 최대 종교지도자 중의 하나였고 반 후세인 투쟁을 하였다. 그는 쉬아파와 수니파간의 통합을 외쳤고 이에 사담정권이 그를 암살했다고 쉬아파들은 믿고 있고 이란정보부에 의해서 암살당했다고 수니파들은 믿고 있다.

6개월 만에 다시 잦은 이라크의 전력사정은 놀랍게도 작년 11월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악화되었다. 그래도 하루의 절반은 전기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하루에 14시간정도 정전이 되고 그 이외의 시간에만 전기가 들어왔다. 일년 이상 전력공급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CPA와 이라크 임시정부, 그리고 이라크인들은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점령당국 측에서는 계속되는 저항세력들의 발전소의 공격이 가장 큰 이유이라고 설명했고 전기선의 도난이 계속이어지고 있어서 전력복구가 늦어지고 있고 때로는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의 이라크인들은 전력난의 이유가 점령당국의 무성의로 인한 것이고 그에 대한 추가설명으로 91년도 걸프전 때에도 비슷한 전력난이 있었지만 사담정권은 단 3개월 만에 원상태로 복구시켰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소수의 이라크인들은 이러한 전력의 난은 점령당국의 통치수단 중 일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바그다드 내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하이달은 □□점령당국은 저항세력의 공격이 치열할 때 전력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이라크 민중들의 고통을 증폭시키고 이에 대한 선전을 저항세력의 공격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서 저항세력과 이라크 민중들간에 이간질을 하려는 술책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은 이라크 민중들이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자체 제너레이터를 구입해서 자체 전기를 조달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이라크민중들은 제너레이터를 구입하기 힘들기에 그냥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지냈었고 최근에는 마을 주민들끼리 스스로 얼마씩 모아서 공동으로 제너레이터를 구입하여 3암페어, 5암페어씩 끌어서 쓰고 있는 상황이다. 1암페어당 매월 3달러 이상하니 적어도 각 가정마다 매월 10달러에서 15달러이상 전기를 추가로 공급받기 위해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5암페어 정도의 전력으로는 간신히 집안의 전등이나 냉장고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냉방제품을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여름철 한 낮의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는 고온의 환경인 이라크에서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이라크 가족 식구들이 자신들 집에서 가장 시원한 곳에 모여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버티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제너레이터도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높은 실업률

현재 이라크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치안상황과 더불어 높은 실업률이다. 여러 조사기관에 의한 실업률의 수치는 제각각 다르지만 대부분 50%이상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실업률이 생긴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이다. 사담정권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21개월 동안,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3년 동안 의무복무기간이 있었다. 복무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권에서 많은 부분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책임지기도 하고 알선해주기도 했다. 또한 정권당이었던 바트당은 많은 수의 이라크인들의 일자리가 되곤 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은 극히 적었지만 이라크내국기업들과 정부산하기업들이 이라크인들의 일자리를 책임졌었다. 그리고 자영업이 성행했었다. 현재 무직의 상태에 있는 살람(바그다드 거주, 사담정권당시 무역업에 종사했던 이라크)의 말에 의하면 □□사담정권당시에는 많은 취업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전쟁 이 후 CPA와 이라크임시정부는 기존의 바트당과 군대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새롭게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기존의 공무원보다 훨씬 더 적은 이라크인들을 고용했다. 하지만 살인적인 높은 실업률의 가장 큰 이유는 이라크내의 불안한 치안상황과 맞물려있다. 계속되는 저항세력들의 공격과 이에 대한 점령군의 반격, 이라크내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과 군인들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과 점령군에 부여한다는 이유로 저항세력의 타겟이 되었고 이에 자체 방어를 하기에 급급했고 이는 미군과 점령군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이라크 사회 내 치안상황이 좋지 않자 자연히 기업들의 활동은 축소되어지고 특히

외국계기업은 전 후 복구사업의 이익을 위하여 초기에 많이 이라크에 들어와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항세력의 타겟이 되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라크를 빠져나가고 있다. 또한 현지 이라크인들마저 밖으로 나다니기 어려운 지경의 불안한 상황이 되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하고 있다. 현재의 이라크 내부의 치안상황이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고서는 지금의 살인적인 실업률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의견이다.

반미, 반외국인 감정

종전 선언 이 후 처음부터 반미, 반외국인 감정이 높지는 않았다. 특히나 반외국인의 감정은 최근에 나타난 것이다. 오랜 사담 후세인정권의 독재체제로 인하여 종전 선언이 있는 후 얼마동안은 상대적인 반(反)후세인 효과를 누렸다. 초기 세달 정도(7월 말)는 수아파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미군정과 미군정에 의해 임명된 IGC에 기대를 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반후세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종전이 된 지 3달이 지나도록 전후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간접시설(전기, 통신, 도로, 항만시설등)은 붕괴된 채 방치되어있고, 교육·의료서비스, 치안유지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라크인들의 삶의 고통은 가중되었고, 이 모든 원성이 미군정과 CPA, 그리고 미국에 의해 선출된 IGC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8월 23일 유엔본부⁴⁾에 대규모 테러 공격이 있으면서 저항세력의 본격적인 점령군 공격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미군을 위시로 한 점령군은 무차별적인 대응공격으로 인하여 무고한 이라크인들이 죽어갔고, 저항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명목으로 행해지는 가택수색, 체포, 구금 등은 이슬람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여러 요인들은 이라크인의 반미감정에 불을 지른 꼴이 되었다. 저항세력들의 공격이 본격화되면서 미군정은 이라크와 이라크인들에 대한 민사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대부분을 저항세력에 대한 반격과 자체 방어에 집중하면서 이는 더욱 이라크인들의 삶을 방치한 결과를 빚었고, 이에 분노한 많은 이라크 젊은이들이 저항세력에 가담하게 된다.

사실 작년 12월까지도 이라크인들의 반미감정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느낀 반미감정의 수준은 그때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다. 이에 중요한 계기는 아부그레이브 교도소 포로학대 사건과 팔루자 지역의 학살 때문일 것이다. 무슬림 사회에서는 집안의 가장을 위시로 한 가부장적 성격이 짙은데, 그들이 보았던 아부그레이브 포로학대 사실은 충격을 넘어서 무슬림들에게 치욕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고 그동안 공공연히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4월에 있었던 팔루자의 학살은 지금도 정확한 사망자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일부의 몇몇 보고서⁵⁾에 따르면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팔루자 주민들이 미군의 공격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러한 반미감정은 젊은 이라크인들에게 직접적인 반미무장세력으로 결집하게 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기존의 반미감정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반외국인 정서는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는 나라에 대해서 더 극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미감정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요청에 의해 군대를 보냈던 나라들도 동일시하여 보기 시작했으며, 특히나 이러한

4) 바그다드 동남부에 있는 알 카날 호텔을 사용하고 있었다.

5) 한국 인터넷 신문인 프레시안(www.pressian.com)과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팔루자학살 보고서 참조

나라들의 동향을 아랍방송에서 비중 있게 다루면서 대다수의 이라크인들이 자기나라에 어떤 나라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이 새로 혹은 추가로 군인을 보내는 줄 잘 알고 있다. 특히나 한국과 일본의 파병은 대다수의 이라크인들이 잘 알고 있고 왜 오는지도 잘 알고 있다. 이는 미군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에 다른 나라의 군인들에 의하여 더 깊은 상처를 새긴 셈이다. 작년 10월 중순 한국정부에 의한 이라크 추가파병이 결정되었을 시 이웃집에 살고 있던 젊은 대학생 하이달은 □□한국의 전투병이 이라크에 온다면 나는 그들을 죽일지도 모른다.□□그는 소위 말하는 저항세력도 아니고 급진 쉬아파세력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에 찼던 말은 미처 한국의 전투병이 오기 전에 김선일씨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실로 드러났다. 김선일씨 이전에도 일본인, 한국인, 그리고 파병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라크 현지에서 저항세력에 의한 납치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구금자(detainee) 및 일반 이라크인들의 인권상황

이라크 내의 구금자에 대한 인권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 2004년 이라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인 Occupation watch에서 발표한 □□구금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과 점령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이라크인들이 체포, 구금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감생활 역시 비참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말부터 터져 나왔던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수감자 학대문제는 현재 이라크인들의 인권 수준을 극명하게 드러내어 주었다.

실제로 2004년 6월 15일 바그다드 ngo건물에서 만난 마흐메트 핫산에 의하면 □□기자였던 나는 바빌 아담이라는 곳에 취재차 갔다가 그 곳의 CPA요인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2달간 아부그라이브에서 수감되었다. □□라고 하며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상대적으로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였으며 기자의 신분이었지만 뚜렷한 혐의없이 바로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수감기간동안 잦은 구타와 육체적 고문을 당했으며 그 증거로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직접 보여주었다. 실제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명확한 직업이 있는 마흐메트 핫산도 뚜렷한 혐의 없이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 2달간 수감될 정도이면 일반 이라크인들이 당하는 인권의 탄압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미군들이 탑승한 차량 및 탱크가 고속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앞의 이라크인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거나 와중에 끼어들면 미군차량에 승차하고 있는 무장한 미군은 총기로 위협을 하거나 심하면 직접 발포를 하기도 한다. 계속되는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인하여 미군은 주위의 대다수의 이라크인들을 일단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대한다. 그러다보니 수십만의 미군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인권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 그들의 사격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며 □□이것이 미국이 외쳤던 민주주의이냐? 이것이 미국이 외쳤던 인권보장이냐?□□라고 하면서 항변한다.

교통상황

교통신호 및 도로의 상황은 6개월 전에 비하여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 이라크 임시정부와 미군정, CPA(임시연합행정처)에 의하여 교통경찰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고용이 되어 교통정리를 하고는 있었지만 문제는 계속되는 저항세력의 지뢰공격과 로켓공격으로 도로는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점령군과 이라크 임시정부가 설치한 체크포인트와 군대기지와 관공서, 각 정당 사무실, 병원들이 자체경비를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콘크리트 장벽과 철조망으로 인하여 도로는 좁아져 있는 상태이다. 또한 매일 발생하는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인하여 미군과 이라크 경찰들은 도로를 봉쇄한다. 이렇게 되면 평소 10분 정도의 거리도 한 시간, 두 시간 이상 걸려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상황에서 이라크인들은 일년 이상 살아가고 있다.

그밖에.

이라크의 아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전쟁 상황에서 커가고 있다. 그들이 보고 듣고 접하는 것은 총성과 폭탄소리, 이웃집 친구들의 죽음소식, 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군인들, 경찰들, 직업이 없어서 집에서 지내고 있는 어른들, 그리고 주위에서 구걸을 하거나 껌을 팔고 있는 또래의 아이들이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곳에서 살아남을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지하는 고민들로 가득차있다. 실제로 몰타다 사드르의 민병대의 구성원 중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집의 큰아들인 아흐메트(17살)도 사드르의 민병대에 가입하기를 원했지만 아흐메트 엄마의 강력한 반대로 가입하지 못하고 크게 다툰적이 있다.

많은 아이들이 화약놀이를 하고 모빌소총과 권총으로 놀고 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아이들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껌을 팔면서 돈을 벌기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도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바그다드 거리를 헤매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전쟁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있지만 이를 치료할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예전에 관계를 맺었던 알 마시텔 헬스센터(한국으로 치면 지역 보건소)에서도 의약품이 없어서 전전공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알 마시텔 헬스센터를 다시 찾았을 때 그곳의 담당자인 아마르는 □□한국의 보건의료연합회에 의약품 지원을 요청할 수 없겠나?□□고 물어볼 지경이었다.

정리하며

6개월간의 이라크 현지 활동, 약 6개월간의 공백, 그리고 다시 찾은 바그다드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있었다. 치안, 전력, 교통, 인권의 상황은 악화되었고 실업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6개월 전과 비교해서 가장 바뀐 것은 나를 보는 시선이였다. 이는 종합적으로 미군정과 CPA, 그리고 IGC에 의한 잘못된 점령정책이 초래한 결과이고 더불어 미군에 요청에 의해 한국군 추가파병을 결정한 한국정부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6월 28일 미군정은 시급히 현재의 점령정책의 실패를 IGC에 넘겼다. 그리고 그들은 배후에서 그들을 계속 조정할 것이다. 현재 다수의 이라크인들이 바라는 것은 미국이 떠들어대고 있는 민주주의 정착이 아니다. 전기와 치안, 그리고 일자리이다. 이제 형식적으로나마 주권은 이라크 임시정부에 넘겨진 상태이고 이라크 임시정부가 시급히 이라크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응답하여 조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들은 미군정과 똑같은 공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가 추가파병을 취소하지 않으면 싸늘하고 분노에 찬 시선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제 2, 3의 김선일씨는 발생할 것이다. 다시 찾은 이라크가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계속 삶을 지속하고 있는 이라크인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힘을 내어 보려한다.

6) 한국의 보건의료연합회는 종전 선언 이 후 3차례에 걸쳐서 바그다드 알 마시텔 지역에 의료지원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알 마시텔 헬스센터가 문을 열고 지속적인 지역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첨부 2) 이라크 2차 보고서

[2차 이라크 현지 보고서]

학살, 저항, 피의 악순환

작성자 : 셀림(평화바닥)

1. 들어가며

고(故)김선일씨 사건이후 7월 중순에 다시 이라크 바그다드에 들어갔었고 약 2달간에 걸쳐 바그다드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미군은 그동안 있었던 전쟁보다 훨씬 강도가 높으면서, 이라크 내 · 외부의 여론을 관여치 않는 전쟁, 아니 피의 학살을 시작하였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사실 이라크 내부의 전쟁의 진행, 학살의 진행은 어느 한 순간 갑자기 시작하여 명확한 시점에 끝난 것은 없고, 작년 8월 이후 계속 진행되었던 것들이 어느 시점에는 악화되고 심화되었다가 다시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 발화의 시점들은 철저히 미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4년 8월은 또 하나의 학살의 달이었고 이러한 학살은 진행 중이다.

2. 성지 도시 나자프, 몰타다 알 사드르

미군은 8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동안 나자프에 있었던 휴전(2004년 6월 4일 미군과 마흐디 군이 맺었던 휴전협상)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이틀간에 걸쳐 300명가량의 마흐디 군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미 7월 중순 나자프에서 마흐디 군은 재무장을 한 상태였고 나자프에 모인 수천 명의 저항세력들은 결사항쟁을 다짐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나자프의 학살은 시작되었다. 그 이전부터 나자프, 쿠파, 카르벨라 등 이라크 중 · 남부 도시는 점령군(당시에는 이탈리아 군이 주도로 된 연합군)간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틀간에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8월에 들어서 갑자기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미군의 변화된 작전과 주권이양을 받은 이라크 임시정부의 저항세력 숙청과 관련이 있다.

미국이 약속한 정치일정은 2004년 7월부터 주권이양, 2005년 1월 의회구성을 위한 총선거 실시를 거쳐 2005년 12월 이라크 정식 정부의 출범이었지만 2004년에 들어서면서도 저항세력의 반격은 수그러들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항세력의 규모와 힘은 늘어나면서 어떻게든 저항세력의 기세를 잠재워야 했다. 저항세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몰타다 알 사드르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큰 표적목이었다. 더군다나 미국 CIA와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발탁된 이라크 임시정부 실권자 이야드 알 알라위 총리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권이양이 있는 후부터 주위의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의 입장에서 지켜볼 때 가장 강력한 경쟁자중의 한명인 몰타다 알 사드르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의 이해가 맞물려 미군과 이라크 임시정부의 보안군은 8월에 들어서 대대적인 저항세력 섬멸작전과 몰타다 알 사드르 제거 작업, 마흐디 민병대 소탕작전에 들어섰다.

하지만 몰타다 알 사드르 개인과 소위 그들이 칭했던 마흐디 군은 미군의 뜻대로 진압되지 않았다. 미군의 잔인한 군사, 학살 작전은 대대적인 이라크 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종파를 넘어서서, 정치적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저항세력들을 강화시켜준 결과만을 낳았다.

8월 10일 이라크 중·남부지역 작전권을 넘겨받은 미군은 나자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헬기와 탱크를 이용하여 나자프를 초토화시키기 시작했다. 12일부터 미군은 탱크, 장갑차, 아파치헬기, 전투기를 이용하여 총공세를 가하기 시작했고 수백 명의 이라크인들을 학살하였다. 하지만 미군과 이라크 임시정부가 맞이한 것은 이라크 전역에서의 저항세력의 결사항쟁이었고 더군다나 엄청난 화력으로 나자프를 봉쇄하면서 학살을 지속하였으나 이라크 전역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이라크 인간 방패 및 지원 저항세력들이었다.

미군의 학살이 진행될수록 이라크 전역의 저항세력의 항쟁은 거세졌고 쉬아, 수니 무슬림 할 것 없이 대다수의 이라크 인들은 미군의 나자프, 알 사드르 학살에 거리로 뛰어나가 학살 중단, 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였고, 8월 중순 내년 1월 총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이라크 국민회의에서도 나자프의 학살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협상단이 나자프로 가기도 했다.

미군은 3주간에 걸쳐 나자프를 완전 봉쇄했고 내부에 있던 기자들도 모두 철수시킨 후에 밤에는 전투기를 이용한 공습을 하였고 낮에는 나자프 시내 안으로 계속 진군하면서 주위에 보이는 이라크 인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사살하였다. 계속 미군의 포위망은 좁혀가면서 저항세력들 중 무장그룹들을 이맘 알리 모스크쪽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이라크 보안군을 이용하여 이맘 알리 사원내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저항세력들은 이미 사원을 비우고 일반 민가로 흡수된 상태였다. 계속 되는 이라크 내 여론악화로 인하여 미군과 이라크 임시정부는 쉬아파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알 시스타니를 영국에서 불러와 협상을 재개시켰고 이에 협상이 타결되자 수백 명의 이라크인들을 학살한 미군은 슬그머니 자신들의 군대를 나자프에서 빼냈다. 하지만 미군의 학살 작전은 나자프에서 이동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3. 바그다드 내 최대 빈민 도시 알 사드르 시(市)의 학살

알 사드르 시는 사담 후세인 정권 이전 압둘 캐림 카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계획된 도시였다. 초기에는 이라크 남부도시인 바스라, 아메라, 나스리야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정착시킨 도시였고 빈민지역이 아니었다. 알 사드르 시의 비극은 걸프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수 인구가 쉬아파인 알 사드르 시는 걸프전 이 후 반란을 진행하다가 도중에 발각되어 그 때부터 알 사드르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은 시작되었다. 의도적으로 전기와 물, 의료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는 것에도 차별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 정권의 탄압이 계속 되고 있었을 때 현재 몰타다 알 사드르의 아버지인 모함메드 싸디끄 알 사드르는 계속 사담 후세인 정권에 저항하였고 그리고 알 사드르 시에 학교와 병원 등을 건립하면서 알 사드르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몰타다 알 사드르에게 자연스럽게 알 사드르 지역 사람들의 신뢰와 애정은 넘어갔다.

나자프와 비슷하게 알 사드르 시에도 미군과 지역 책임자들 간에 협정이 체결되어진 상태라서 미군의 진입은 한동안 드물었다. 하지만 미군은 나자프 학살이 시작됨과 동시에 알 사드르 시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탱크와 장갑차를 이용하여 도시를 봉쇄하고 전기와 물을 차단하면서 내부로 진입하여 저항세력이라고 여겨지는 젊은이들을 체포, 구금, 저항 시에는 학살하였다. 이 역시 2004년 8월에 새롭게 시작된 일이 아니라 그동안 1년여에 걸쳐 알 사드르 지역 사람들이 몰타다 알 사드르를 신뢰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가했던 탄압에 그 수위를 높인 것이었다.

알 사드르 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다이(26세, 버스운전자)의 증언에 의하면 8월 초기 2주간은 헬기가 동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탱크와 장갑차를 이용하여 도시 내를 폭격하고 저항세력들 간 교전이 있었는데, 이라크 임시정부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이 있을 후에 헬기와 전투기를 동원하여 주, 야간 공습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때부터는 집 밖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격했고 하루에 4~5시간 정도 공급되었던 전기와 물도 완전히 차단하였다고 한다. 또한 초기 10일간에는 저항세력들의 커다란 반격이 있었지만 미군의 헬기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저항은 미비해 졌다고 한다. 그리고 미군은 도시를 탱크로 에워쌌고 동시에 특정지역 내에 일정한 zone을 만들어서 그 지역 내에서 주둔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 사격을 하였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젊은이들은 체포를 했고 그 지역의 작전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작전을 수행하였다고 했다. 알 사드르 시 내의 두개의 병원은 꼭 차 있는 상태였고 총상을 당해도 밖으로 나가서 죽는 것보다는 집 안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그냥 집 안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상당한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산하 기관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후세인 알리(21세)의 증언에 따르면 □□알 사드르 지역에 미군이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알 사드르 시의 학살은 시작되었고 비극도 시작되었다.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바깥출입을 할 수 있었고 그 외에는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다. 부상자를 거리 통제로 인하여 이동시킬 수도 없었고 특히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이라크 경찰 중에서도 저항세력 쪽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었고 저항세력들이 거둔 승리에 대해서는 전혀 뉴스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는 이라크 임시정부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경찰중의 한명이었지만 미국과 이라크 임시정부 측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사담 후세인 정권 때에도 알 사드르 시는 가장 심각하게 탄압을 받았지만 현재는 그 때보다 더 심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저항세력들의 항쟁에 □□이는 미군의 점령에 저항하는 독립전쟁이다.□□라고 하였다.

그 외에 만나보았던 알 사드르 지역의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비슷했다. 문제는 나자프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었을 때 알 사드르에서 학살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 나자프가 성지도시라는 점과 이맘 알리 모스크가 있는 지역 상징성으로 인하여 미군과 임시정부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주어 상대적으로 학살의 시간을 단축시킨 반면에 알 사드르 시는 전혀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했고 언론에서도 알 사드르 시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살의 기간도 길었고 이에 대한 복구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정수시설은 고쳐지지 않아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수질병을 앓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4. 그 외 팔루자, 라마디, 바쿠바 그리고 바그다드

8월에 들어서면서 변화된 미군의 소탕, 섬멸 작전은 이라크 전 지역에서 저항세력의 항쟁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미군은 또 공습과 폭격으로 맞서면서 이라크 내의 전쟁은 심화되고 있다. 8월 중순 미군은 한동안 자제했었던 팔루자의 공습을 다시 감행하였다. 이유는 언제나 같다. 「알 카에다와 연관되어 활동하고 있는 알 자르카위 무장세력 제거」 하지만 미군의 공습에 피해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무고한 시민들이다. 8월 나자프의 학살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에도 미군은 팔루자의 공습을 재개하였고 8월 후반부에 들어서 나자프 지역과 이라크 중 남부 도시에서 미군들이 빠져나오면서 그들은 바로 팔루자와 라마디, 바쿠바, 사마라 지역에 재배치를 하였고 연일 공습을 하고 있다. 9월에 들어서는 이틀에 한번 꼴로 미군의 발표를 접한다. □□팔루자 지역 공습, 라마디 지역 공습, 그 외 지역 공습, 수십 명의 저항세력 사살□□그리고 9월 초에는 이라크, 시리아 국경 지역 tal afar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서 미군 측 공식 발표로만 60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이 사망하였다.

이에 이라크 저항세력들은 차에 폭탄을 가득 싣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임시정부 건물에 돌진한다. 그리고 또 수십 명이 죽거나 부상당한다. 미군의 공습과 작전이 수위에 맞춰서 저항세력들의 항쟁도 더불어 움직인다. 또한 9월 초순 바그다드 내 하이파 거리에서 미군의 브래들리 차량이 저항세력의 공격에 폭파되고 불이 나자 주위에 있던 이라크 인들이 환호를 하면서 차량 근처로 몰려들었고 취재진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접근했다. 이를 하늘에서 주시했던 미군 헬기가 그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여 수십 명의 이라크 인들과 기자가 사망했다. 9월이 들어서면서 바그다드에서 어둠이 깊어지면 사망 곳곳에서 쿵, 쿵 한다. 대낮에도 인군 상점, 도로에서 연속적으로 폭탄이 터진다. 야간에는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동안 헬기소리는 자주 접했지만 전투기 소리는 뜸했는데 거의 매일 전투기의 굉음을 듣는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현지 뉴스에 팔루자, 라마디, 사마라, 바쿠바 또는 다른 지역에서 미군의 공습이 있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당했다고 발표한다. 미군 측의 발표는 없거나 간단하다. □□알 자르카위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에 정밀 폭격, 알 자르카위.....어찌고 저찌고, 저항세력.....어찌고 저찌고□□

이제 저항세력과 미군과의 전쟁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이라크 전역으로 넓혀졌다. 북부 모술부터 남부 바스라까지 미군은 학살의 공세를 늦추지 않고 연일 맹폭을 하고, 군사작전에 돌입하였다. 그간의 국제 여론과 이라크 내부의 권력 이해관계로 인하여 한동안 유지했던 수세적 입장에서 돌연 공세적 입장으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작전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미군의 분석처럼 이라크 내의 저항세력들이 한정되어 있고 이라크 외부에서 넘어온 이슬람 전사로 구성 되었다기보다는 미군의 점령 정책 실패, 그리고 지속되는 학살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발적 이라크 인들이 훨씬 더 많고 이에 동조하는 이라크 민중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라크 임시정부의 현실도 전혀 미군의 예상 밖이었다.

5. 가중(加重)되는 이라크 사회 불안

이라크 내의 학살과 저항이 심화되면서 이라크 사회 내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인접 국가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요르단 국경과 시리아, 이란, 국경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바그다드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미군의 무차별 사격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불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군의 주둔이고 또 하나는 살인적인 실업률이다. 이는 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중요성이 가득한 이라크 인들에게 미군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임시정부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지로 많은 이라크 인들이 이라크 인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있다. 사회의 혼란이 깊어질수록 공격의 대상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이는 이라크 사회를 내부에서 쪼개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군과 연합군, 기자, 엔지오 활동가, 심지어는 돈을 벌기 위해 이라크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하나는 높은 실업률이다. 50%이상 육박하는 실업률은 일반 이라크 인들에게 범죄집단에 쉽게 가담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실제로 이라크 내에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납치와 강도 사건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은 자체 방어에 급급하다. 일반 이라크 인들의 경찰서 출입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니 단속은커녕 신고조차 힘이 든 상황이다. 이에 일부 범죄집단은 더욱 기승을 부린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잡아둔 범죄인들도 미군의 손에 의해서 풀려나고 있다. 실제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 많은 이라크 인들이 풀려나고 있는데 석방자들 대부분은 범죄인들이고 정치범이나 미군에 저항했던 저항세력들은 사면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부 이라크 인들은 현재 이라크 내부의 불안을 미군이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면 아니건 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라크 사회내의 치안은 악화되어 가고

있다.

6.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이라크의 학살과 저항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이라크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은다. 어떻게든 미군은 이라크 내에서 저항세력들을 소탕, 섬멸하려 할 것이고, 이는 자연히 무고한 이라크 인들을 더욱 죽이거나 부상 입힐 것이다. 이에 저항세력의 항쟁 또한 지속될 것이다. 이제는 나이 어린 학생들도 저항세력에 가담하여 피의 보복을 맹세하고 있다. 이라크의 한 민간단체에서 이라크 전쟁 이후 사망한 이라크 인들의 숫자를 발표했다. 만 오천명 이상이다. 이것도 그동안 발표된 언론의 통계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니깐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를 합한다면 훨씬 그 이상일 것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종전 선언과정에서 사망한 이라크인은 약 2~3천 명 정도로 집계하고 있다. 그 다섯 배의 이상의 사람들이 미군의 점령기간 동안 숨졌다. 그들은 하나같이 가족 내에서 소중한 아들, 딸 들이고 아버지, 어머니들이다. 이에 이라크 인들이 총을 들고 미군과 맞서, 점령군에 맞서, 점령군 측에 있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라크는 전통적으로 부족 사회이다. 여전히 큰 가문의 영향력이 강력히 미치고 있다. 그동안 이라크의 관습 중 하나는 한 집안의 사람이 다른 집안의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해를 받으면 가문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대처하였다. 이것이 그들에게 법과 질서였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해로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점령, 통치하였다. 그리고 이라크 인들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부상을 입히고 죽음을 주었다. 이에 이라크 인들의 방식은 구형 소총과 박격포를 들고 저항하는 것이다.

미국과 점령국은 이를 테러라고 명명하면서 계속 짓밟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계속 이라크 인들의 비극만을 늘릴 뿐이다. 대다수의 이라크 인들은 미군의 주둔과 존재에 엄청난 증오심과 분노를 표출한다. 이미 이 증오심과 분노는 견줄 수 없어서 수많은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데도 미군은 계속 이라크 인들을 학살한다. 그리고 저항세력들은 다시 미군과 그의 편으로 여겨지는 나라와 국민, 그리고 자국 이라크 인들을 공격한다. 매일 매일 수 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피의 악순환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미군과 점령군의 철수이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사회 혼란을 핑계 삼아서 미군과 점령군의 철수는 이라크의 더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주둔을 정당화시킨다. 하지만 내가 만나본 이라크 인들의 의견은 달랐다. 이라크 인들도 현재 이라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부 이슬람 전사와 테러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미군의 학살과 점령에 반해서 자발적으로 저항세력에 가담하고 있다고 하였고 미군이 이라크에서 존재를 감추면 대다수의 저항세력들은 공격을 멈출 것이고 이는 현재 전체 문제들 중에 70% 이상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나머지의 상황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정부와 경찰과 군인으로 제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의 민심이 지금은 반미, 반점령의 상황이지만 미군의 철수로 인하여 이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적어도 매일 수십 명씩 이라크인의 죽이는 학살이 중단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이라크의 전쟁, 비극의 시작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있다. 이라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비극의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미군이 있다. 앞으로도 미군의 존재, 미군의 주둔이 계속 되는 한 이라크의 전쟁과 비극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첨부 3) 이라크 주권이양에 따른 이라크인들의 이야기 - 8월 8일 작성

주권이양(主權移讓)이 후 이라크의 모습은?

평화바다 활동가 셀림(이동화)

2004년 6월 28일 현지 시간 10시 30분, 이라크 인들은 상당히 쇼킹한 뉴스를 접하게 된다. 이는 약속된 날 짜보다 이를 앞서 이라크의 주권을 연합임시행정체(CPA)에서 이라크 임시정부(IRAQ INTERIM GOVERNMENT)로 이양한다는 것이었다. 주권이양의 행사는 바그다드 내 그린존(GREEN ZONE, 바그다드 중심가에 위치한 예전 사담 궁전이 있는 곳인데, 바그다드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 해서 그린존이라 불린다.)내의 비밀장소에서 폴 브레이머 최고 행정관과 그 대변인 그리고 현재 이라크 임시정부 대통령 아질 알 아와르와 총리인 알 알라위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권이양 문서를 주고, 받는 것으로 끝을 냈다. 이로써 1년 2개월간의 미군 주도의 점령상태는 공식적으로 끝을 냈다. 그로부터 약 한달 반가량이 지난 지금 이라크 인들은 주권이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권이양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라크 인들을 만났다.

주권이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 이라크 임시정부 총리인 알 알라위는 주권이양 당일 날 기자회견을 통하여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라크 인들은 오늘을 기뻐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그러할까? 필자가 만났었던 다수의 이라크 인들은 주권이양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 예로 이라크에서는 경사스러운 날이나 축하 할 일이 생기면 가지고 있던 총기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공중에 발포를 한다. 처음 접하는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축하행사가 교전(交戰)으로 착각 할 정도이다. 올해 초 이라크 축구대표팀이 올림픽 본전에 진출한 날 바그다드 시내에는 주민들이 쏟아올린 총알들로 하늘을 뒤덮었다. 하지만 주권이양이 있던 날은 누구도 공중에 대고 발포하지 않았다. 바그다드 시내에서 타자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아달(27세)씨는 주권이양에 대하여 □□주권이양은 미군과 점령군이 전부 철수해야지 진정한 주권이양이라 할 수 있다. 너도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바그다드 곳곳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이양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 다수의 일반 이라크 인들은 실제로 미군에서 이라크 임시정부로 주권이양이 된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으며 계속 미군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주권이양이 되었던 초기에 이라크 인들은 현재의 이라크 임시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바그다드 대학 공과대에 재학 중인 아후메트 핫산(26세)은 □□주권이양 이전에는 주권이양이 되면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임시정부의 인물들은 적어도 이라크 인들이고 무슬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주권이양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같은 대학 체육대학에 재학 중인 알리 후세인(27세)은 □□주권이양은 게임이었다. 여전히 미국은 이라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주권이양의 속내를 꼬집었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나마 주권이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입법, 사법, 행정권의 이전(移轉)이라 할 수 있으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은 행정권의 이전일 것이다. 바그다드 내 루사파(바그다드는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서쪽을 알 카르흐 지역, 동쪽을 알 루사파 지역으로 나눈다.)지역 문화체육부를 책임지고 있는 아크람 나임 아트완(31세) 정부관리의 말에 따르면 □□실제 이라크 행정권한의 이전은 5월 22일부터 이

투어졌다. 주권이양일 보다 약 1달 이상 빨리 이전이 시작되었고 더 이상 미군관리의 승인이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라크는 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권이양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관료들이나 관공서의 인사들은 이번의 주권이양을 반겼으며 자신들이 누릴 좀 더 많은 권리를 반가워했다.

주권이양 이 후 무엇이 바뀌었는지?

바그다드 대학 내 나하렌 생명공학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가이다(23세, 여성)씨는 주권이양 이후 이라크 내 각 정당에서 대학 안으로 들어와서 각각의 정당모임을 결성하고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당에 가입시키려 하고 있고 가입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고, 무당파(無黨派)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시키고 이러한 와중에 갈등상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점점 정치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들로 인하여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점들이 두렵다.□□

바그다드 시내 알 자유나 지역 경찰 서장을 맡고 있는 무스타파(47세)는 □□주권이양 이 후 이라크의 치안은 이라크 경찰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주권이양 이 후 치안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이라크 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테러리스트들을 다 검거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필자는 경찰 서장을 만나기 위해서 이라크 인들에 의한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한 후에 다시 미군의 검문을 다시 받았어야 했고 필자를 검색하던 미군에서 □□이미 정문에서 검문을 받았다.□□라고 하자 미군은 □□그건 상관없다. 나는 내가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계속 추궁했다. 그리고 나서야 이라크 경찰 서장을 만났고 그에게서 이라크의 독립된 경찰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쉬아파 종교지도자(셰이크) 카심 자파르 핫센은 주권이양 이 후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것이 변하였지만 특히 거리에 이라크 경찰들이 많아졌다. 주요 검문소도 이라크 인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들의 태도도 친절하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바그다드 중심가 가라테 거리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아마르 아즈즈(30세) 또한 비슷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라크 경찰들이 많아졌고 이라크 군인들도 많아졌다. 그들은 치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라크 민중들과 좀 더 친숙해 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 주권이양 이 후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소수의 의견들이다. 전직 변호사였던 하이달(25세)의 생각은 약간 유보적이다. □□주권이양 이후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라크 인들은 주권이양 이후 지금까지 무엇이 변했는지 필자에게 강하게 반문하였다. 그들은 주권이양 이 후 이라크 사회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이에 이라크 임시정부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바그다드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아부 함메트(40세)는 □□변화? 무엇이 변화하였는데? 바그다드? 팔루자?(주권이양 이후에도 미군은 팔루자 지역에 알 자르카위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계속 공중폭격을 가했고 이에 다수의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이다.) 나자프?(물타다 사드르 측의 저항세력과 미군과 이라크 임시정부간의 교전으로 공식적으로 3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수천 명을 체포하였다고 했다. 8월 7일 알 아라비아 방송, 글을 쓰고 있는 현재도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바쿠바?(수니삼각지대내에 있는 반미저항도시) 모슬?(이라크 북부 최대도시, 주권이양 이후 시장 급(級) 되는 고위 관리가 암살당함) 바스라?(이라크 남부 최대 도시), 이라크 전역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안정되고 나아진 곳이 있는냐? 변화? 있지. 예전에는 검문소에서 미군이 앞에 서서 내차를 막았는데 이제 미군은 뒤에 있고 이라크 경찰을 앞에 세워놓고 내 차를 못 가게 하는 것. 그것 빼고 뭐?□□그는 자신의 말에 분노를 담았다. 알고 보니 그는 팔루자 출신이었다. 놀랍게도 많은 이라크 인들에게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악화된 치안 상황과 높은 실업율에 대한 무(無)대책이었다. 그리고 주권 이양 이후 저항세력의 공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고 더욱이 저항세력들의 전략자세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주권이양 이전에는 미군과 점령군과의 게릴라식 교전, 지뢰 폭탄 매설, 원거리에서의 로켓포 공격, 그리고 자살폭탄차량 공격이 주(主)를 이루었는데 주권이양 이후에는 정부요인 암살, 기업인 및 노동자 납치, 이라크 접경 국가 노동자에 대한 협박 및 실제 공격 등으로 저항세력의 공격 목표가 확대되고 목표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이나 공통점을 찾아보기 힘들어 졌다. 더군다나 8월 초에 있었던 바그다드와 모술 지역의 5군데 기독교회에 대한 폭탄공격은 그동안 수십 년간 타종교와 아무런 마찰 없이 지내오던 이라크 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과 불안감을 가져다주었다.

저항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랫동안 이라크 내에서 관광업에 종사했고 외국인과 많이 일을 했던 카심은 □□ 나도 저항세력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의 적은 명확하다. 미국이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을 납치하고 참수하는 세력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이라크 인들도 개의치 않고 납치하고 죽이고 있다.□□하면서 저항세력들을 평했다. 전직 변호사 출신인 하이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라크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는 무리가 있다. 이틀 전에 발생한 기독교회 폭탄공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이라크의 독립을 위함이 아니라 돈이나 다른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50%이상은 정통저항세력들이다. 나는 이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앞서 언급한 가이다씨는 □□점령군에 대한 공격은 정당하고 이라크의 독립을 위함이지만 아직까지 (저항세력)내부를 조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끼친다.□□라고 하였다.

이라크인들의 생각은 자신이 처한 처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진짜 저항세력(미군과 점령군에 저항하는 이라크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된 무리)과 가짜 저항세력(타국에서 넘어온 전사(戰士)이거나 민간인들도 공격하는 무리)이 이라크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두 세력을 만들거나 끌어 들인 장본인은 미군이라고 믿고 있다.

바그다드 대학교 학생인 아후메트는 □□사담 후세인이 잡히기 전에 미국은 사담을 악의 근원인양 떠들어 댔고 사담 후세인이 잡히자 미군은 알 자르카위를 대타로 세웠고 그리고 알 자르카위가 붙잡히면 또 미국은 누군가를 만들어서 내세울 것이다. 이것이 그들(미국)의 방식이다.□□라고 꼬집었다.

조심스럽게 고(故)김선일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처음에 물어보았을 때는 그들의 대답은 직업, 직종, 성별, 나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하였다. 대단히 슬픈 일이고 이슬람 정신에 위배되고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보니깐 고(故)김선일님이 일하고 있었던 회사(가나무역)와 이라크에서 무슨 일(미군 막사 물품 제공)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듯 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그들에게 고(故)김선일님이 다녔던 회사와 이라크에서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일부 이라크 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면서 복잡한 속내를 잠깐 비쳤다. 아델씨는 □□미국은 우리의 적이다. 그들을 위해서 그(고(故)김선일님)가 일했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라크 인들은 그가 비록 미군 막사에 물품을 제공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민간인이고 납치와 처형의 방식은 이슬람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의 가슴 안에 있는 미군에 대한 분노와 평화를 지향하는 이슬람의 종교성이 혼재되어 있는 듯 했다.

외국군의 주둔과 한국군의 추가파병

알 알라위 총리는 주권이양이 있을 후 이라크 인근 아랍 국가를 차례로 순방하였고 각 국의 정상들을 만

나면서 군대를 포함한 군사원조를 요청했었다. 또한 현재 이라크에는 미국과 영국을 위시로 한 약 30여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의견을 물었다. 익명을 요청한 이라크 내무부의 고위급 관리는 □□인근 이슬람 국가의 군인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치안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면 저항세력의 공격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조건은 미군의 완전철수이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또한 타국의 군대가 미군을 지원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라크인은 타국 군대에 의한 점령을 반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하였다.

또한 셰이크 카심도 미군과 점령군의 주둔을 반대하면서 인근 아랍국가의 군대 주둔에 대해서도 □□그들(인근 아랍국가)은 자신들의 국경통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현재 외부에서 유입된 전사들로 인하여 이라크는 혼란을 겪고 있다. 그들(인근 아랍국가)이 진정으로 이라크의 치안을 돕기 바란다면 국경(국경통제)에서 이라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직접 이라크 주둔방식을 반대하였다.

전직 신문기자이면서 한국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살람(25세)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점령군의 즉각적인 철수가 이라크상황을 내전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들은 권력자들이거나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미군 축을 행복하게 하기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점령군이 철수 하면 더 이상 저항세력은 이라크 정부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저항세력)도 이라크를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합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한국군의 추가파병에 대해서도 □□이라크와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왔다. 많은 이라크인들이 한국제품이라는 상표만 붙어있어도 믿고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왜 한국정부가 이러한 좋은 관계를 깨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한국군의 이라크 주둔은 분명히 한국과 이라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저항세력들은 한국군을 공격할 것이다.□□

이라크에 오기 이전에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이라크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참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 예전 한국 엔지오 통역을 했던 살람(43세)은 □□한국군은 이라크를 위해서 오고 있는 아니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한국군 추가파병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 또 살람은 추가파병지가 아르빌이라는 사실에 분개했다. □□아르빌 지역은 쿠르디쉬 자치구역이면서 십년 이상 경제체제의 피해에서,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난 지역이다. 더군다나 쿠르디쉬 사람들은 미군과 점령군에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라크인들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정부는 보다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쿠르디쉬 자치지역 내를 선택한지는 모르지만 결코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소수 의견도 존재했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아마르(30세)는 □□외국군대가 들어오면 더불어 외국인 기업도 들어올 것이다.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면 더불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무직의 상태인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어서 저항의 강도도 떨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라크의 치안이 안정될 것이다.□□또한 알 마시텔 헬스센터 내과의사인 지하드(33세)는 □□미군과 영국군을 제외한 다른 외국에서의 군대가 유입이 되면 상대적으로 미군과 영국군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라크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외국군대내의 힘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 조차도 이라크에 실제 정부가 존재하기 전까지 한시적은 주둔을 강조했다.

이라크 임시 정부의 미래는?

조심스럽게 현재 이라크 임시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먼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들은 치안유지, 실업을 저하, 전기, 물, 전화와 같은 사회 간접시설의 복구 및 재건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들이 상호 맞물려 있어서 한 쪽이 기울면 다른 쪽도 같이 기울다는데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단 기간에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데 있다. 특이나 미군정에 의해서 1

년 2개월 이상을 전혀 나아지지 않고 도리어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상황은 임시정부 시작부터 미군정의 폭 두각시라는 명예를 둘러싼 채 저항세력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그다드 대학 법대 학 장인 페티프(50세)는 □□내년 1월 제헌의회구성(?)을 위한 선거까지 현재의 상황은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이 다. 현재 이라크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각 종파간, 종족간 도움이 필수인데 알 알라위 정권은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알 알라위 정권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미군정의 대리)도 이라 크인들의 민심을 사지 못하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일부 이라크 인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면서 여전히 임시정부에 대해 기대를 품고 있기도 하다. 그들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에 최악(미군정)보다는 차악(이라크 임시정부)을 선택하는 듯한 느낌이였다.

대다수의 이라크 인들은 이라크 임시정부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고 어두울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필 자도 동의한다.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라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 목표으 로는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한시적이고 시한부 정부인 이라크 임시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사 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 많은 이라크 인들은 **이라크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유를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나 구체적인 예측가능한 정황도 없는 듯 하다. 그냥 좋아질 것이라고 한 다. 필자로써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진정으로 그들은 이라크의 미래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 자신 들의 힘으로 이라크를 재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듯 하다. 필자도 그렇게 믿기로 결심했다. 비록 객관적 정황들이 혼란스럽고 답답하지만 이 안에서 오 랜 기간을 살아왔던 이라크 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에 나도 그러할 것이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라 크 민중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다.

첨부 4) CWB 활동보고서(2004년 6월 이전까지)와 CWB 정관

◆ CWB 활동보고서 ◆

1. 알 투와사 학교 지원(활동 cd 있음)

- 개요 : 3월 31일 9시 살람과 미스 라켓, 미스 새겨, 바심, 사둔, 팔립, 알리, 지네, 리야드, 메이슨, 아훗메 트와 함께 알 투와사 방사능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알 투와사 지역을 방문했고 지역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검진하기 위해서 fata al isalmic(페타 이슬람 학교, 프라이머리 스쿨) 학교에 갔고 그러면서 그 학교 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페타 이슬람 학교는 학교 소유주에게 매달 50,000디나를 지급해야 했고 그 돈은 아 이들에게서 나왔다.

- 학생수 : 425명(남자 221명, 204명)

- 선생님수 : 12명

- 교실 수 : 3개(교실당 65명을 수용하고 오전, 오후 반을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음)

- 부대시설 : 변기 1개, 세면대 한개(사용할 수 없음)

- 특이사항 : 천장은 대나무가지로 얽여 매었고, 대다수의 학생이 황달, 영양결핍을 가지고 있음. 교육기자 재가 거의 없어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 전형적인 빈민가 지역임. 게다가 이 지역은 1982년 핵무기

공장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이 이 지역을 공격했고, 1991년 미군에 의해서 재차 공격을 당했고, 2003년, 한국 방송에도 방영이 되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방사능 분말통(yellow powder can)을 비우고 거기에 물을 담은 통으로 사용했던 지역이다. 그래서 방사능 피해가 심각히 예상되는 지역이었고 살람과 단체(cwb) 회원들이 이를 조사하기 위해 그 곳에 갔다가 어린이들의 방사능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그 학교에 방문했고 그 곳에서 학교의 상황을 접하고 지원을 시작함.

[※ 방사능 조사에 대한 추가사항 : 3월 21일, 다양한 루트(인터넷, tv, 엔지오 관계자)들을 통해서 알 투와사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았고 많은 알 투와사 지역주민들이 이사를 했다는 사실에 그 이유가 방사능 피해임을 예상하고 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함. 그리고 패타 학교에서 3차례에 걸쳐 20여명의 아이들을 살만 백 지역헬스센터에 건강검진을 의뢰함. 의사는 일반적인 영양결핍으로 이야기했고 몇 가지 치료책을 제시했다. 살람은 그 의사와 솔직한 이야기(방사능피해)를 했고 의사는 솔직히 미군과 ministry of health 관계자가 지역 의사에게 이미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또한 예전 일본의 엔지오(트루가 자원봉사형식으로 참가했지요)가 방사능 측정을 했지만 측정 와중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당시 살람이 트루에게 이라크에서 떠나기를 원했고 이틀 뒤 트루는 암만으로 떠났다. 그 이후 일본 엔지오가 진행했던 알 투와사 지역 방사능 측정 결과는 보도가 되지 않았다. 살람은 바그다드 다른 지역의 병원에 방문해서 방사능피해에 관한 도움을 신청했지만 병원관계자에게 거절을 당함. 그 이후 살람과 라그ħ은 안전상의 이유로 일단 조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알 투와사 지역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그다드 대학 bio technology 연구소에서 공부하는 웨이마에게 조사를 의뢰했고 웨이마는 담당 교수에게 의뢰했고 승낙을 했다. 그 와중에 살람은 암만에 회의를 참석했고 그 이후는 점검되지 않고 있다.]

- 3월 31일 밤, 팀원들과 함께 패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리기구들(가스, 가스레인지, 주전자, 플라스틱 컵 120개를 샀고, 100볼 지불)샀고, 4박스의 비스킷과 한 박스의 분말 우유를 구입함(45볼 지출)

- 4월 3일, 2 차례에 걸쳐 학교 선생님인 쿠르드 선생님과 같이 4박스의 비스킷과 한 박스의 우유를 지급함.

- 5월 25일까지 금요일(휴일)을 제외하고는 총 46일 매일 같은 분량(4박스의 비스킷과 한 박스의 분말우유를 지급) 총 지출금액 (정확하지는 않음. 2241볼 지출, 부대비용 미 추가, 일하는 사람의 교통비등은 제외됨,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돈이 지출이 됨. 모든 돈이 살람의 개인 돈으로 이루어짐)

- 그 이후 학교 방학과 맞물려 지원이 중단되고 있음. 살람은 계속 지원하기를 원하지만 살람의 개인돈이 바닥이 났음.

2. 새로운 방식의 교육에 대한 회의(CONFERENCE, 인화된 사진을 가지고 있음)

- 개요 : 오랫동안 살람은 새로운 형태의 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3월 21일 최초 ministry of education 의 4개 지부 중 1개 지부 담당자와 미팅을 가짐. 3시간동안 이야기를 하였고 담당자는 동의를 했음. 담당자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지역 600개의 학교 명단을 살람에게 주었고 살람은 지역별로 20개씩 묶어서 일주일 단위로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선생님들이 참가하는 회의와 father's council (한국으로 치면 학부모회)를 구별해서 2차례씩 가졌고 살람은 각 미팅에서 아이들의 평화심성을 키우는 훈련과 한국의 교육실정과 비교해서 낙후된 이라크 교육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들의 책임이 어른들과 선생님들에게 있음을 강조했다.(첨부화일 참조, CWB 단체 설명서)

- 3월 23일, 사전 준비미팅(CWB 회원들과 함께)

- 3월 29일, 알 마지다드 지역의 FATHER'S council과 회의를 가짐(5명의 단체회원과 9명의 참석자)

- 4월 1일, 알 베이야헤 지역, 사이드 빈 알 무사야브 선생님 40명과 3명의 정부관계자, 6명의 단체회원과 함께 회의를 가짐

- 4월 4일, 알 도라 지역, 빌락 알 슈하다 학교 선생님 48명과 교육지부 담당자와 회의를 가짐. 쿠르디쉬

지역 어린이 피해 사진전을 가짐

- 4월 8일, 알 리사알레 지역, 파티머 학교 선생님 35명과 회의를 가짐, 같은 날 father's council, 알 지하드 지역, 15명의 학부모와 회의를 가짐
- 4월 11일, 알 지하드 지역, 알 프라트 학교 34명의 선생님과 회의, 같은 날 14명의 학부모와 회의를 가짐
- 4월 20일, 알 슈루타 지역, 알 마지다드 학교 20명의 선생님과 회의
- 4월 25일, 교육지부 빌딩에서 25명의 선생님과 정부 관계자와 함께 마지막 회의, 대다수의 학교가 시험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회의가 중단됨. 살람은 지금은 방학기간이기에 학기가 개학되면 계속 회의를 지속하기를 원함
- 회의 내용은 대부분 CWB에 대한 설명과 현재의 교육 문제에 대한 논의 등이 주를 이루었음.

3. 학교 프로젝트

- 개요 : 영어공부, 컴퓨터 활용능력, 전쟁터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정신 속에 파괴와 살인, 죽음, 총, 폭발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에 대한 대답으로 새로운 학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계획하게 됨.

- 진행과정 :

(1) 3월 22일, 교육지부 관계자와 접촉을 가짐, 학교 장소를 알아보기 위함, 관계자는 긍정적 반응을 보임, 알 마지다드 학교 사용을 구두 승인을 함.

(2) 그 이후 살람은 학교 기자재(컴퓨터, 음악 기구, 선생님, 수송용 버스, 보디가드, 책)의 종류와 필요경비를 알아봄.

(3) 5월 초에 윤정은씨와 호텔에서 만남을 가지고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함. 윤정은씨는 한국의 이라크평화네트워크와 상의 후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 경비비용을 요구했고 살람은 그에 대한 초기 8000불과 월 1000불이 필요로 하는 비용서를 구두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람이 암만에 가기 전까지 많은 논의를 윤정은씨와 하였음. 윤정은씨는 한국의 팀과 논의를 하였고 이라크평화네트워크에서는 지원의 가능성을 비치면서 구체적인 경비비용서를 요구했다. 얼마 후 살람은 암만의 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 그 와중에 살람의 회원은 정부의 담당자와 함께 학교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를 진행했다. 구두승인을 공식적인 승인으로 돌리기 위해서 정부 승인서를 요청했고 정부관계자는 승인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4) 살람이 암만에서 돌아온 후 윤정은씨는 살람에게 이 학교건립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이 부분은 살람과 정은씨가 이야기 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다. 이 와중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나, 결론적으로 살람은 이라크평화네트워크에서 재정이 나올지로 믿고 있었고 그럼으로써 구체적인 일을 추진했다. 정은씨에게 지원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도 살람은 일을 추진하고 있었고 내(셀림)가 이라크에 온 얼마 후 정부 승인서가 나오기 하루 이틀 후 살람과 긴 시간의 논의를 통해서 상황이 파악되었으며 이 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음.

- 참여 회원 : 6명

4. 팔루자 의약품, 식료품 지원

- 개요 : 팔루자 학살 당시 팔루자는 봉쇄되었고 이 뉴스를 접한 살람은 많은 팔루자 주민들이 학살당했고 의약품이 없어서 아주 위험한 상황임을 알게 됨. 살람의 친척 중 한 명이 팔루자에 살고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팔루자에 살고 있었다. 살람도 그 곳으로 들어가는 여러 길들을 잘 알고 있었다. 살람은 트럭에 CWB의 천막을 걸고 의약품과 식료품을 싣고 팔루자 안으로 들어감(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함). 팔루자에 살고 있는 친구집에 방문해서 가지고 간 의약품과 식료품을 그냥 친구 집에 전해주고 바로 돌아왔다. 그리고

2차례 더(총 3차례) 팔루자 안으로 들어가서 식료품과 의약품(밴드, 진통제, 주사제등)을 건네줌.

- 총 2000~2800불 가량이 지출, 윤정은씨가 500불을 지원해 줌. 유은하씨 그룹에서 지원받은 돈 중 500불을 사용함.

- 팔루자 봉쇄가 풀린 후 2차례 더 팔루자에 들어감. 팔루자의 처참한 상황을 보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여력이 없어서 지금은 중단된 상황임.

5. 팔루자 센터

- 개요 : 팔루자 봉쇄가 풀린 후에 2 차례 더 들어간 팔루자에서 살람은 종합적인 센터를 생각하게 되었다. 어린이 교육, 헬스센터, 조사업무, 감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센터의 필요성을 느낌

- 진행 : 윤정은씨와 팔루자에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나눔.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은 상태

- 현재 : 살람은 팔루자에 센터를 설립하고 싶어 했고 내가 이라크에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만약 한국에서 몇몇 엔지니어가 관심을 가진다면 그 단체와 연결하기를 원함. 이 팔루자 지원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계속 강조함. 팔루자에 많은 슬픈 사연이 많고 내가 팔루자에 가서 직접 보기를 원함.

6. 어린이들을 위한 매거진 발행

- 개요 : CWB 내에는 압둘 카림, 나히, 아하메드, 아바 사만이라는 전 현직 뉴스기자들이 있음, 사담 정권 시절 어린이들을 위한 주간 잡지가 있었고 현재는 무수히 많은 뉴스가 출판되고 있고 앞으로 정당 쪽이나 종교 쪽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가 나오겠지만 아이들에게 편향적인 인식을 주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람이 전 현직 기자였고 사담 정권시절 당시 주간잡지 출판에 관여했던 4명(언급된)에게 제안을 함. 4명의 사람들이 전적으로 동의함.

- 7차례 미팅을 언급된 4명과 가짐.

- 주로 어떻게 매거진을 발행하고 무슨 아티클을 실을 것이고 몇 쪽짜리를 발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 논의결과 : 어린이들을 위한 격주 전문잡지, 정당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신지 않기, 내부 합의 원칙 등 3가지 원칙을 정함

- 현재 : 현재 논의 중임. 아직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음.

7. 연극 상영

- 개요 : CWB 내에는 2명의 남자 배우와 2명의 여자배우가 있음. 그들이 살람에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 상연을 제의함. 살람은 그들의 취지에 동의함. 한참 논의를 진행 중임.

- 2차례 논의를 함

- 명확한 논의결과는 없고 계속 논의를 진행 중임.

-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그들이 CWB 내의 멤버십이다. 앞서 언급한 매거진팀이나 연극 상영을 원하는 팀도 CWB의 회원이라고는 하지만 회원을 규정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소위 이라크 상황은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의 활동내용에 동의하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멤버라고 한다. 그래서 살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멤버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여러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일처럼 하는 사람은 리아드와 바심 그리고 나, 이렇게 4명이 지금 CWB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라고 했다.

the internal system of children without borders organization

INTRODUCTION

The standard of the progress of countries depends directly and seriously on how much these countries care for children especially concerning health, education, nutrition and everything related with childhood. this is because children are the ones who will lead society in the future. the phase of childhood will reflect effectively and directly on their futuristic role in leading the society.

here, in iraq, we suffer from this problem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getting to know more about the suffering of childhood in iraq needs a lot of patience. for centuries, the iraqi children did not have the right to live like other children of the world do, he did not have the right to play like other children of the world do. he did not almost have any chance th have proper nutrition, and his right to have medical care was depending on the policy of those politicians to whom the child meant nothing. what is these children's fault so that they would be deprived from their simplest right : to live in the world they were born in, or in fact, the world they were forced to live in.

the world in which they had all kinds of suffering since the day they were born, and their only fault is that they were born iraqis, but does that mean that they should undergo all this torment.

the child in iraq forgot, for many years, how to feel the beauty of having a toy(which is one of the things that a child instinctively like). instead, he started playing with plastic guns which he seems to enjoy more than toys, and the problem is that this is the dominant conduct among iraqi children. one would think : why not, was not they born in the battle ditch, did not they suck blood instead of milk, was not their parents killed by a shell or a missile from one army or another.

we believe in the right of children to live in peace, to have a happy childhood and to have a sufficient amount of education and medical care, just like other children of the world. children should have their voice heard all over the world without racial, ethic or religious barriers. this is the point from which we volunteerly statted after joining our forces.

putting in mind all the suffering of our children : which will be a cry in the face of humanity that will break all boundaries so that all human beings would work together for the sake of happiness of world's children. our belief in our cause is supported by all the worldly laws & traditions as well as all the heavenly legislations, which calls for the care of the children so that they become aware of their responsibilities after their childhood.

so, it was necessary for us to accelerate the spreading of children's culture in a civilized way and to point out the il-treatment of children from his birth until the early stages of his educational life and treating those false activities.

chapter one

(name and location)

- item 1 : name for the association :
(children without borders organization)

- item 2 : headquarters of the association : (baghdad)
the associations also has the right to open other all over iraq and abroad

chapter two

(aims of the association)

1. helping the children to have their rights in education and medical care.
2. holding forums and symposiums with the educational staff to spread children's culture.
3. holding forums with parents to discuss the means of civilized education and its importance for the children's future
4. estalishing cultural centers in residential areas especially in poor neighborhoods, which includes : teaching computers, languages, drawing, music and other hobbies.
5. working on starting programs for feeding at schools especially in poor and rural areas.
6. investigating the phenomenon of the loss of children.
7. investigating the issue of the children being used for begging, to find out those responsible for this felony and suing them judicially.
8. forming commissions to find out the il-treatments against children at home and in the school, to corr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and the society.
9. creating strong relationships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with all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concerned with children's affairs inside and outside iraq.
10. issuing a periodical newsletter dealing with the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s, which will also keep on spreading children's culture in our nation.
11. finding the best ways to strengthen friendship between the children of iraq and the world's children, through opening several centers for correspondence and communication, and this will have a great effect on the future relations between the world's nations

chapter three

(membership)

item 4 :

1. the association is made up of the members who has fulfilled the conditions of membership.
 2. members are accepted through a decision taken by the directorial board, after the conditions are fulfilled.
 3. the members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meetings of the directorial board.
 4. the title(honorary member) can be given to the personalities active in children's care whether from iraq, arab countries, or others
 5. the title(supporting member) can be given to whoever likes to support the association, without being obliged to take part in the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

chapter four

(conditions of membership)

item 5

1. a member must be over 18 years old.
 2. a member must believe in the principles and aims of the association and defend the rights of the children.
 3. a member must not be related to any other organization the aims of which contrasts with the aims of the association.
 4. a member must defend the rights of children without discrimination and should refuse to participate in racial or ethic events
 5. a member must totally and clearly refuse all kinds of violence or inciting to violence.
 6. a member must contribute seriously in all the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

chapter five

(losing membership)

item 6 : a member loses his membership when :

1. quitting being a member voluntarily, after informing the association.
 2. a member is proved to have violated one of the conditions of the association.
 3. a member commits serious and clear offenses that damages the reputation of the association and its aims and activities.
-

chapter six

(boards of the association)

item 7. the directorial board⁷⁾

1. the directorial board is made up of five members
 2. it elects a president and a deputy president for the association.
 3. it arranges the members of the directorial board and gives a certain role to each one of them.
 4. it forms specialized commissions according to its necessity and abilities.
 5. the directorial board can add one further member, from the general board, when it is necessary.
 6. the directorial board can form sub-commission in the cities of iraq, the number of the members of which must not be less than five members
 7. it hold its meetings every three months to review the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

chapter seven

the general association :

1. the general association is made up off all the registered members of the association.
 2. it hold its meeting every six months.
 3. it discusses the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and submits its suggestions to develop these activities, in a way that goes with the aims and ambitions of the association.
-

chapter eight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item 9 :

1. directing the forums and meetings of the association and the decisions will be issues under his name.
 2. applying the decisions of the directorial board after consultation, the decision making is done through voting.
 3. supervising and following up the work and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s commissions and giving notes to the directorial board.
 4. appointing employees , workers and consultants, whether volunteers or not and releasing them.
 5. monetary allocations goes under his name and he has the right t give a bonus to the excellent workers(whether employees or volunteers)
 6. calling upon the association's bonus for an extraordinary meeting when necessary.
-

chapter nine

(revenues of the association)

7) 편집자 주 : 아마도 이사회(the board of directors)를 칭하는 듯 함

item 10 : the revenues of the association consist of :

1. the participations of the association's member.
2. the unconditional financial supports which are not against the aims of the association.
3. the revenues of the association's publications and activities.

item 11 : the association's money are to be sp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ims and goals of the association.

chapter ten

1. the association ceases to exist with a decision from the directorial board and with the agreement of no less than two-thirds of the association's members.
2. the directorial board is the one to determine how to deal with the properties of the associations
[the member of the association have no right to claim back what they have donated to the association]

첨부 5) 평화배움터 제안서
[제안서]

이라크 평화배움터

- 전쟁피해지역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출자 : 셸림 (평화바다 활동가), 살람(CWB 활동가)

1. 설립배경(background)

하나, 미국은 1991년 걸프전을 시작으로 전투기와 탱크, 각종 최신무기로 이라크를 초토화시켰고 그 이후 2003년 3월 전까지 13여년에 걸쳐 백만 명 이상의 이라크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제제재를 시행하여 이라크를 지속적으로 목 졸랐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20일에는 이라크 본토를 침략하여 이라크의 주권을 빼앗고 이라크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미국의 점령정책은 이라크 인들의 염원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는 이라크 인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주었고 이에 이라크 인들은 미국의 점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미군과 점령군은 엄청난 화력으로 진압하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라크를 초토화 시켰던 미국의 막강한 폭격도 저항을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저항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 미국 조지 부시대통령의 종전 선언 이 후 지속되고 있는 저항세력들의 공격에 미국은 전투기와 헬기, 탱크와 장갑차를 이용하여 섬멸, 소탕작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그에 피해를 받는 계층은 일반 이라크 민중들입니다. 미군은 일반 가정집, 사무실, 모스크를 가리지 않고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미감정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폭격하여 민간인들도 학살합니다. 그리고 미군의 폭격과 학살, 소탕작전은 특정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셋, 미군의 소탕작전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은 전기와 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암흑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군의 작전이 있을 때에는 밖으로 외출도 하지 못하고 전기도 물도 없는 공간에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공포의 시간은 더 합니다.

넷, 미군의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의 아이들은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실업율이 50%에 육박하는 이라크 생존경쟁에 내던져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상 공부해야 할 장소가 없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들은 거리에서 골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만들어내는 무기와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전쟁예행연습을 합니다.

다섯, 아이들은 증오와 분노를 익히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죽어가는 친구들, 부상당한 형제들,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나이에 그들은 가슴속에, 기억 속에 분노와 증오를 키우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 애들은 전쟁터 병정이 됩니다.

여섯, 한국정부는 이 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전하였고 지금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군인을 이라크에 보낸 전범동맹국가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 민중들과 어린이들에게 총구를 들이대면서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이야기하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전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이라크 아이들, 민중들과 더불어 전쟁의 피해를 치료하고 이라크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려 합니다.

2. 설립 목적(purpose)

하나, 기본적으로 전쟁 피해, 진행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둘, 그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셋, 그들과 함께 평화에 관한 공부를 하기 위함입니다.

넷, 무엇보다 그들의 의식과 기억, 문화 속에 존재하는 전쟁, 무기, 죽음, 공포, 폭력 등을 걷어내고 평화, 공존, 관용, 어울림 등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3. 설립 과정(process)

※ 이라크 평화배움터는 현재 이라크 내에서 활동하고 CWB(Children Without Border)의 활동의 일환이자 중요 사업입니다.

1) 사전 논의(이는 현지에서의 CWB 단체 회원들과의 합의와 동시에 한국에서 함께 하려 하는 단위들 간의 논의, 합의를 포함합니다.)

2) 지역 선정(선정 요건 : 전쟁이 진행되고 있거나, 전쟁 피해로 인하여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지역, 빈민지역, 현재 예상 후보지 : 팔루자(수니 삼각지대내 미군의 집중 폭격도시), 나자프, 바그다드 내 알 사드르 시, 알 투와이사 지역)

3) 지역 담당자와 의견교환(의견 타진, 장소 제공의 유무 등)

4) 장소 섭외

5) 현지 스태프 구성(집행, 운영 단위)

6) 재정 확보

7) 배움터 공간 구성, 기자재 구입

8) 그리고 배움터 문을 엽니다.

4. 시기별 설립과정(timetable)

1) 이라크 현지 계획

(1) 2004년 11월까지 설립 후보 지역들 접촉

- 지역 담당자들과의 만남, 의견타진, 의견 수립

- 평화배움터 설립위원회 구성

(2) 2004년 12월

- 설립 지역 선정

-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논의 사항 :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재원마련방안)

(3) 2005년 2월

- 장소, 공간 꾸미기
- 선생님들 교육 연수
-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준비사항 점검, 기자재 구입, 프로그램 마련)

(4) 2005년 3월

- 배움터 오픈(시범)
- 프로그램 시행

(5) 2005년 6월

- 중간점검
- 현지 타당성, 필요성 점검, 재정안.....

2) 한국 계획

(1) 2004년 11월

- 단체, 개인에게 홍보
- 평화바닥 내 소위원회 결성(가칭 : 평화배움터 준비위원회)
- 재정 안 마련(*CWB 활동가 초청, 파병연장 반대 운동과 결합하면서 평화배움터 홍보)

(2) 2005년 2월

- 재정마련 이벤트 개최
- 활동가 파견

4. 이라크 평화배움터 운영방안

※ 지역에서 추천되거나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한명과 CWB 활동가 한명 과 함께 상시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시설물 보호 및 책임을 관리.

※ 아이들을 교육공간은 교육시간에만 문을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의 공간은 일과시 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 각종 서적을 구비한 조그마한 도서관 the library included many kinds of books
- 시범적으로 영성회복과 평화심성을 마련하기 위한 평화수업진행 the temporary PEACE classes for bringing up the children's peace mind and the spiritual recovery
-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the safety playing ground for children
- 현지에서 필요한 교육실행(아랍어, 이슬람)
- 부수적인 수업진행(영어, 컴퓨터, 음악, 미술 수업)

5. 예산안 (budget) : 초기 1년 동안

- 장소 임대
- ※ 지역 내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라크 교육청에서 건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건물을 임대함)

: \$150*12 = \$1800

- 인건비

※ 특정 과목 (영어, 컴퓨터, 음악, 미술, 아랍어, 이슬람)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고, 관리인 한 명과 아이들을 돌보아 줄 대체 선생님 두 분을 채용한다.

: \$150(관리인 급여)*12+\$150(두 분 선생님)*12 = \$3600

- 물품구입비

※ 청소도구, 냉방시설, 시설 구성도구(시멘트, 페인트, 삼. 기타 등등) 구입

: \$ 1000

- 수업기자재 구입

※ 책 · 결상, 노트, 책, 컴퓨터, 칠판, 분필.....(살람의 예산안을 참조함)

: \$5000

- 서적구입

※ 우선적으로 기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라크 내에서 어린이용 서적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일단 서적은 독자의 나이에 한정시키지 않고 기증받을 수 있는 모든 서적을 끌어 모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서적을 구입합니다.

: \$600

- 예비비

: \$1000

총 초기1년 예상비용 :\$ 13,000

6. 예산 확보 방안

- 1) 예산 확보의 원칙은 한국에서 전체 예산의 70%를 담당하고 나머지 30%는 현지 CWB의 몫으로 합니다.
- 2) 한국 측에서 충당할 10,000불의 경우에는 30%는 제 활동비에 충당(체류비용과 집값)하고 30%는 주위의 모금으로 대체하며 40%는 자체 캠페인(일일 주점등 다양한 이벤트)로 충당합니다.
- 3) 부족분이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지의 상황에 맞게 부족 예산안을 다시 마련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이월시켜서 CWB 단체 활동비로 충당합니다.

7. 전망(perspective)

- 우선 초기 일년 동안은 평화배움터가 지역에서 자리를 잡히는데 중점을 두고 분기에 한번씩 평가를 내립니다.
- 초기 정착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는 지역 내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활동들을 넓혀나갑니다.
- 현재 전쟁피해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고아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시설 등으로 이에 대한 현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들을 잡아나갑니다.
- 그리고 평화배움터 내에 CWB 단체 활동 사무실을 위치시키고 한국과 이라크를 잇는 연락사무실 역할을 합니다.
-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지역 여성들을 위한 쉼터 역할도 병행하도록 합니다.